NOV 1 5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80 1982년 11월 1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November 1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문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토론토대

한국학과 내년중 설치

$27만 확보, 교민 호응이 관권

토론토대학 한국학과후원재단은 27만달러의 기금을 확보, 제1차 모금목표액 30만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윤여화 이사장은 한국의 학술진흥재단에서 지난달 미화 10만달러를 보내왔으며 나머지 금액 모금을 위해 11월말께 모금파티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이사장은 후원재단의 최종 목표액은 50만달러라고 전했다.

후원재단은 지난 8일 가진 긴급이사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측이 내년도 지원비로 잠정 책정한 20만달러를 내년 6월이전 보내주도록 교섭, 제임스·햄 현 토론토대학총장이 이임하기전 한국학과 설치문제를 마무리지어 내년 가을학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의했다.

학술진흥재단은

민간단체로 국내외의 연구기관, 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이날 이사회는 또 현재 토론토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9개 한국학관계 강의로 생긴 작년도 적자 $1만1천과 금년도의 $3만8천을 재단의 기금에서 지불키로 결의했다. 지금까지 이들 강좌는 한국의 무역인협회 산학협동재단의 보조로 유지돼 왔으나 학과목 증가로 경비가 늘어 적자가 커졌다.

재단측이 $50만 모금에 성공하면 연방정부도 같은 금액($50만)을 지원, 이를 기본금($100만)으로 금융기관에 예치, 그 이자로서 한국학과가 운영된다.

현재 토론토대학(UT)에는 국어및 문화사등 9개 정규과목과 1개 성인교육부 과목이 한국학 과목으로 강의되나 재단측은 학사~박사자격을 주는 정식 한국학과 즉 체어(Chair)를 만들어 보다 활발하고 지속적인 한국학 연구를 가능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UT 동아시아학부(East Asian Studies)내에는 중국학 프로그램과 일본학과 프로그램이 있다.

유형승 재단부이사장은 9일 정식학과로서 박사학위까지 수여할 수 있는 규모가 되려면 적어도 풀타임 교수 3명과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교수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바드대, 하와이대등에도 한국학과가 있으나 교민사회가 주동이 되어 대학에 한국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토론토가 처음이라고 유부이사장은 덧붙였다.

이민자코뮤니티가 주동이 되어 본국및 캐나다 당국의 협조로 기금을 마련, UT에 학과를 설치한 예로는 우크라이나학과와 항가리학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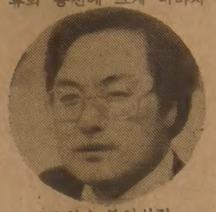
운영자금을 원조받더라도 학과운영권은 전적으로 대학당국이 가진다. 이때문에 교수의 인선, 과목선정, 봉급액수등에 관해 재단측은 특별한 청사진이 없다.

현재 한국학 강의를 맡고 있는 백용진(언어), 유재신(문화사)등 교수도 테뉴어(Tenure) 즉 영구직 교수가 아니므로 이들이 계속 한국학과의 강의를 맡을지의 여부도 대학당국이 결정한다.

◆윤여화 이사장

테뉴어가 없는 교수들은 풀·타임이더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윤이사장은 현재까지 9개 한국학과목의 총수강자는 150명까지 늘어 성과가 좋고 또 대학으로서는 돈 한푼 안들이고 학과를 증설하는 이점이 있어 한국학과가 설치되면 수강생 확보등의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이사장은 한국학과 설치는 이민후세나 캐나다사회에 한국을 바로 알리고, 한·카 교류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므로 많은 교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승 부이사장

유부이사장은 최근 햄총장이 두번씩 한국을 방문하는등 외부여건이 좋은 때이므로 교민들의 성원이 클 경우 내년 6월 이전 목적달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인코뮤니티의 문화·정신면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 교민은 한국학과 설치는 한·카관계를 더욱 밀착시키는 한편 한국문화의 정수를 이땅에 제대로 전달시키며, 이민 코뮤니티의 정신세계를 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기자 2명 추방령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외신종합)서울주재 CBS특파원등 외신기자 2명이 한국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CBS뉴스의 토니·반즈기자(25)에게 『앞으로 10일이내에 한국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또한 AP통신 서울지국장인 에드윈·화이트씨도 최근 서울지검공안부에 소환되어 3시간동안 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귀순한 중공조종사 오영근소령이 몰고온 미그19기의 기체사진을 보도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텍사스주 출신인 여기자 낸시·랭스턴(29)은 지난6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16일까지 한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럽을 방문중인 트루도수상이 11일 서독 라르시의 NATO 소속 캐나다군기지를 방문, 레오나드 탱크를 시험운전하고 있다. 옆에서 운전을 가르치고 있는 군인은 존·맥클린타이어 소위이며, 탱크 꼭대기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어린이는 트루도 수상의 큰아들 저스틴(10)군. 트루도 수상은 3일간 불란서를 공식방문한 후 서독에 도착했다.

인준은 무기명투표로 결정

한인회총회, 12일현재 유권자 789명

27일의 한인회장 인준투표를 위한 한인회 임시총회는 하오2시 한인회관에서 거행키로 확정했다.

11일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량)는 인준방법을 정관(한인회칙)에 의해 투표로 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년도 회비를 납부한 한인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한인회비(1인 $10, 부부 $20)납부는 당일 현장에서도 가능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했다.

회비납부 회원들은 유권자명단에 의해 신분증(ID카드)과 대조후 투표권이 주어지며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한인회에 의하면 12일 현재 금년도 회비징수 실적은 모두 7,890달러이며 회비납부자중 20달러(부부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380명, 독신회비납부자는 29명이나, 부부에게는 각각 투표권이 주어지므로 총유권자수는 789명이 된다.

한인회회원은 토론토및 인근지역 거주자로 한국계 혈통을 가지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으나 18세이상의 회원에게는 회비납부의무와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주어진다.

◀금주의 행사▶

– 11월15일(월)~21일(일) –

◆11월19일(금) 하오7시
워커톤 시상식(양토원건립위 주최)
곳: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 Tor.)

◆20일(토) 상오9시 (배구협회 주최)
추계한인(남녀)배구대회
곳: West Humber 고교
(1675 Martingrove, Etobicoke)
연락처: 923-3846
※주장회의는 18일(목) 하오7시30분

◆20일(토) 제5회 캐나다 태권도대회
정오(예선), 하오7시(결승)
곳: 요크대학 체육관(4700 Keele St.)
전화: 922-5117

◆20일(토) 하오1시 노년회 주최
젊은이들과의 대화
곳: 교육회관(252 Bloor St.W.) 2층 212호실
강사: 박희민 목사
연락처: 755-8079(한국노년회)

◆20일(토) 하오3시 〈코리언저널〉 창간10주년 파티
곳: 토론토한인회관
전화: 757-8000

◆20일(토) 하오7시
대학생동창회 「대화의 시간(공청회)」
곳: 교육회관 2214호(252 Bloor St. W.)
연락처: 245-2125(윤주석 회장)

◆20일(토) 하오9시45분
아이스하키 중등선수 선발(모국체전)
곳: Chesswood 아리나(4000 Chesswood.Dr.Downsview)
연락처: 741-2522

◀사 고▶

한인업소전화부 12호

12월에 발간예정

토론토 한국일보사는 한인업소·단체 전화부 제12호를 오는 성탄절(12월25일)을 전후해서 발간합니다.

본사는 80년12월25일 업소전화부(Korean Business & Organization Directory) 11호를 발행한 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다음호를 이제껏 준비하지 못했읍니다.

이제 교민사회에서의 업소전화부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 실제로 교민여러분의 요청이 커 발간을 결정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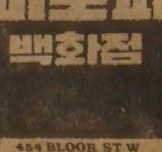
업소전화부에 게재되기 위한 요금은 별도로 없으며 누구든지 요청하시면 게재되며, 본사는 기관이름·상호·단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등을 적절하게 배치, 토론토 한인사회의 각종 단체, 업소, 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합니다. 단체·업소전화부는 한국일보와 함께 독자 가정에 배달되며 이밖에 특별히 요청해 주시면 누구에게든지 별도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게재대상
1)한인기관·한인단체
2)한인이 주고객이거나 교포들도 많이 이용할 업소.(따라서 댁스·밀크, 베커·스토어, 버라이어티·스토어등은 제외됨)
3)종교기관, 교습소, 의사, 변호사등 전문인기관
★게재 신청마감: 12월10일(금)
★업소부에 실리는 광고신청 마감: 12월6일(월)

※주의: 다음 해당자는 특히 연락요망함.
80년12월 이후,
1)새로 생겼거나
2)없어졌거나, 활동이 없는 유명무실 단체
3)대표자 이름·주소·전화번호등이 변경된 단체·기관·업소.

토론토 한국일보사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다이아몬드·순금
란콤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약혼·결혼예물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4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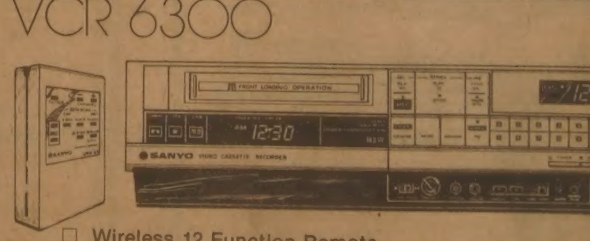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푸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ANYO 년말 대매출

크리스마스
비데오
스페샬

VCR 6300



☐ Wireless 12 Function Remote
☐ 105 Channel Capability (105 채널 녹음가능)
☐ 8 Day - 1 Event Timer
Reg. $ 1395 Spec. $ 995

VCR 4000

☐ 3 Day - 1 Event Programming
☐ Remote Pause/Still Frame
Reg. $899 Spec. $699

Power! Precision! Performance!
THE AUDIO SOLUTION VALUE! NOW ONLY
$ 499.
… 값이 싸고, 완벽한
스트레오 세트를 구입하세요 …
(STAND는 포함안됨)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전 광 재
아카데미 T.V. STEREO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better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핵무기생산 중단하라"

리튼공장 앞서 7백여명 시위

리튼 핵무기부품공장 앞에서 벌어진 반핵무기데모로 70명의 시민들이 체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온타리오전지역에서 모인 18개그룹 700여명의 반핵운동맴버들은 리튼공장의 시티비유·프랜트 앞에 모여 "리튼은 미국의 크루스미사일 부품생산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데모대들은 11일 아침부터 시티비유·프랜트(Hwy 27×벨필드)주위에 경찰이 처놓은 바래캐이트 부근으로 모여들기 시작, 경찰이 프랜트출입을 통제하자 길거리에 주저앉기 시작했다.

10일부터 현장에 기다리고 있던 3백여 경찰관들은 데모대들이 교통을 방해하자 이들을 인도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차례 끌어내었으나 데모대들이 반항이 계속되자 이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체포된 데모대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1일밤을 경찰에서 보낸후 12일 재판에 회부됐다.

◆미국 크루스·미사일 부품을 조립하는 리튼공장 앞에서 있는 핵무기 반대 데모 광경. 진압경찰에 70명이 체포되었다.

슬리대리티 지도자 바렌사 석방

(바르샤바—외신)폴랜드정부는 불법화된 슬리대리티·노조의 지도자인 바렌사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정부관리들이 11일 전했다.

바렌사는 11개월전 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구금되었다.

저지·우르반 정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바렌사는 "국내안정에 더이상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며칠내에 아무 조건없이 석방될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파병여부 11월중 공식발표

(서울12일=연합)한국정부는 레바논주둔 평화유지군에 한국군을 파병해 달라는 레바논정부의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11월중으로 발표하게 될것이라고 외교소식통들이 12일 전했다.

한국이 파병요청을 수락할 경우 레바논사태에 관련된 아랍국들과 비동맹권국가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서울주재 외교공관에 한국군의 파병에 관한 코멘트를 부탁한 결과 모로코와 요르단이 이미 파병을 찬성했다고 전하면서 늦어도 내주초까지는 여타아랍국들의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카고 한인 문화방송 개국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방송

시카고 한인문화방송이 25일 개국, WEEF(1430 KHZ)국을 빌려 문화방송(KCR)은 전에 방송에 관계했던 교포 10여명이 시카고교민들에게 교양과 생활정보 쪽으로 도움을 주려는 동기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교민사회의 방송실무자들과 미국인들로 이사를 구성중이며 실무임원은 국장 임주택, 편성 김수연, 업무 이종근씨로 구성됐다.

이 방송은 매일 낮 12시부터 1시간동안 방송되며 앞으로는 독자적인 방송국인가를 받도록 발전계획을 갖고 있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社說

「인준총회」

27일 임시총회를 맞아

토론토한인회는 오는 27일 한인회장인준을 위한 총회를 가지며, 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금년도 한인회비 납부자로 제한했다.(•토론토 한국일보 12일자)

원래 이날 임시총회는 한인회장단을 투표로 뽑기 위한 투표총회였으나 금년도에도 4번째 연달아 단일후보로 귀착, 이 후보팀(장순채회장, 변의섭·이기훈부회장)을 놓고 "이들을 회장단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인준총회로 격하(?)된 것이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첫째, 한인회가 1966년 창설된지 16년만에야 회장단선거권 및 인준권을 회비납부자로 제한한 것은 한인이민사에 남을 획기적 발전이라는 점이다. 한인회칙 6조1항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고 했고, 동2항에서는 「18세이상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선거권이라는 권리행사를 못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불구, 이제껏 회장단선거권은 의무이행여부를 가리지 않고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인(토론토시와 인접지역거주)에게 똑같이 부여했다. 이것은 회비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이었음은 물론 위법이었으나 「관습」으로 용납되어 왔었다.

둘째, 과거의 한인회장단일후보팀을 인준할 때는 참석자들이 박수로 통과시키는 원시적방법도 있었고, 거수로 인준여부를 결정하는 편법도 있었음에 비하면 이번에는 "회칙(제32조의 확대해석)에 따라 인준도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방침은 역시 진일보한 민주원칙에 맞는 조처라고 보겠다.

세째, 이번 27일 총회의 참석자를 「회비납부자」로 제한했음은 그 의도가 불분명하고 엄격한 제한이라는 여론이 있다. 회비를 안낸 회원이 투표는 할 수 없더라도 총회에 참석조차 못한다면 한인회는 한인동포의 단체가 아니고, 무슨 특권계급자들의 모임인가? 옵저버 자격도 없는가? 그렇게 배타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지 교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네째, 만일의 경우 단일팀이 인준을 못받는데 대한 대책도 있는지? 회칙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없고, 또 선례도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계자간에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또하나 문제는 투표권을 위해서라도 내야하는 한인회비는 도대체 얼마인가? 이다.

70년대 초반, 회비는 세대당 8달러였다가 어느틈에 10달러가 됐고, 다시 20달러가 됐다. 그것도 성인1인당인지, 부부당 인지 모호한채 20달러라고 못박았다. 가족중 18세이상 성인이 3명이상이면 얼마를 내는지도 분명히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늘 현재 대부분 가정은 세대당 20달러를 내왔지, 가족중 성인수를 따져 회비를 내는 회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들었다.

이제 한인회측은 회비는 "성인1인당 10달러"라고 다시 말한다. 따라서 과거 20달러를 낸 회원은 부부 것을 합쳐 낸 것이고, 부부가 아닌 싱글회원의 20달러는 10달러는 회비, 나머지는 기증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문제도 이제껏 어느 회장이건 회비를 올리면서 이를 분명히, 떳떳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혼동을 빚는 것이다. 불신은 이런데서도 초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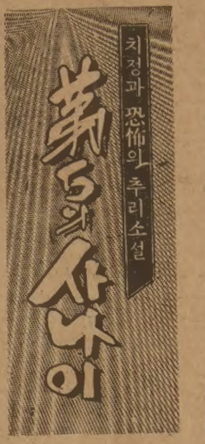
한인회의 무기력—한인회에 대한 교포 무관심—단독출마의 고질화—회비납부 기피(12일 현재 409명만 납부)—이같은 맹점(나쁜 경향)에서 우리는 빨리 탈피해야겠다. 우선 급선무로 회비 미납자는 회비를 내고, 인준총회에 많이 참석하는 성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죽이고 파괴하는「비디오 게임」 어린이 精神건강에 악영향

성행하고있는 비디오게임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에버렛·쿠프공중보건국장의 발언으로 비디오게임에 대한 찬·반양론자들의 논쟁이 일고있다.

쿠프국장은, 비디오게임이 모든것을 죽이고 파괴하는 행위로 단순화시켜 아동행위에 이상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는데 게임제작자와 심리학자등 비디오게임의 옹호자들은 도리어 기술개발, 협동및 화합등에 유익하다고 반박하고있다.

金聖鍾 작



<108>

29분의 1 ⑬

毛世 살해얘기에 그녀는 몸을떨며 놀라…

문자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몰라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말고는 그런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시겠지요.』

그는 당연히 그럴줄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별난 이름이거든요.』

그는 씩 웃고나서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형사의 웃음에 그녀는 소름이 쭉 끼쳤다.

『그 사람이 죽었나요?』

『살해됐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 저집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일어난 토막살인사건 있지않습니까? 바로 그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된거죠.』

『어머나!』

그녀는 어깨를 움크리면서 몸을 떨었다. 젖가슴이 출렁거렸다.

『무서워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마인은 그녀 옆으로 다가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 이었다.

『네,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엄연한 사실로 나타났으니까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사건하고 우리집하고 연관을 시키시죠?』

『글쎄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읍니다. 수사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읍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찾아오신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무턱대고 아무 집이나 찾아갈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해서 우리집에까지 오시게 됐나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수사상 비밀이니까요.』

『궁금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건 말씀 드릴수 없읍니다. 그렇게 아시고…。한선생님을 만나뵙고 갔으면 좋겠는데…。』

『만나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일이라면 괜히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줄 알면서도 해야하는게 우리들의 임무랍니다. 내일쯤 회사로 찾아가서 뵙죠.』

『네, 그러시는게 좋겠어요.』

『실례 많았읍니다. 술도 잘 마셨읍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는 벌건 얼굴로 일어섰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따라 일어섰다.

『경찰한테 유감이 많아요. 우리집을 살인사건하고 연관시키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술마시러 오신다면 몰라도…。』

그녀는 눈을 흘기며 말했다. 마인은 그녀의 육체를 엿훔쳤다.

『그러구 말구요. 저도 이런 일로 여기를 다시 방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폴레옹 코냑이라면 몰라도…。』

그는 현관에 서서 능글맞게 웃었다.

朴男 그림

세실·그린의 생애

문우일(지구물리학 박사)

"Your responsibility exceeds your authority"

—Cecil Green—

◆문우일 박사

지구물리학하면 물리학, 화학 또는 지질학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므로 지구물리학 얘기나 지구물리학자의 얘기를 한다는 것을 독자는 좀 이상히 생각할지도 모른다.

〈쎄실·그린〉은 지구물리학자라기 보다는 지구물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크게 성공한 사람이며, 어떤점에서는 한국계캐나다나 한국계미국인으로서 사회적여건이 이공계공부한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의 인생에 대한 태도에서 뭔가 좀 배울점이 있는지도 모른다. 꼭 지구물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미국이나 캐나다대학의 이공계에 몸담은 분들에게는 〈쎄실·그린〉이란 낯선이름이 아니다.

벤쿠버의 USC(부리티쉬 콜럼비아대학교)에가면 〈쎄실·그린〉공원이라는 UBC를 방문하는 손님, 학사들을 대접하는 관리가 있는곳이 있고, 토론토대학교에 가면 195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작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돕는 〈쎄실·그린〉장학제도가 있다.

미주에 가면 〈쎄실·그린〉교수직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육영사업이 MIT공대, 캘리포니아대학교, 유명한 스크립 해양학연구소, 텍사스대학, 스탠포드대학 등에서 몇십년씩 계속돼 왔다.

〈쎄실·그린〉의 부모들은 1900년초에 캐나다에 이민으로 와서 몬트리얼, 토론토를 거쳐서 벤쿠버로 옮겨 살았고, 〈쎄실·그린〉이 학교를 다닐때는 벤쿠버의 헤스팅스·스트리트(Hastings St.)에 살었다. 쎄실은 UBC(불리티쉬 콜럼비아대학교)에서 이공계공부를 하다 미국 MIT공대에가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다음에는 지구물리학연구에 종사하게 됐다. 공부를 마친후에는 미국의 G.E., GSI등에서 일하다가 다시 MIT공과대학에서 연구생활로, 다음에는 T.I.(Texas Instrument Ltd.)를 창설한자의 한사람으로 공헌했다.

〈쎄실·그린〉이 크게 성공하는 과정에 많은 일화들이 있지만 두가지만 여기에서 들어보자.

쎄실·그린이 MIT 공과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할때 같은 연구실에 촬리·리튼(Charlie Liton)이 같이 일하고 있었다. (C. Litton은 Litton이라고 역시 미국에서 큰 전기제품회사를 시작한 사람이다) 그당시 이 두 친구들은 보통새벽 3—4시까지 연구실에서 일을했고, 부인들이 바가지를 있는대로 긁고 나서야 새벽녘에 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몇년전까지만해도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를쓰고 공부를 하다가도 한번 입학돼 놓으면 놀면서도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었다.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정부에서는 요사이는 졸업정원제를 만들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한걸음 더 나갈수는 없는지? 이곳 도서관에 가면 매년 세계각국에서 이공계 연구논문이 학술잡지에 수록 출판 통계해놓은 것을 볼수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그수가 한국에는 몇십개에 불과, 아프리카의 미개국들을 빼 놓고는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미국의 웬만한대학교에는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학생이 수십명씩 있고 적어도 수십명의 박사를 이 매년 한국에 귀국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만 들어가면 금의환향해 "놀아서" 그런지? 큰 의문이다.

또 북미에서도, 북미에서 공부한 한국계 인텔리들이 많고, 그중에 많은수가 박사님들이다. 또 자의, 타의의 권유로 많은 이분들이 교회나 한인단체에 들러리로 일하시고들 계시다. 이런분들을 자주 만나보면 흔히 느끼는 인상이, 한번 졸업식만 끝나고 학위를 받으면, 교회나 한인단체에 들러리로 봉사하고 공부는 소홀히 하는 것 처럼 보인다.

한인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고 하는것이 전혀 아니다. 단지 〈쎄실·그린〉이나 〈촬리·리튼〉이 학위를 MIT에서 받고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벽 3—4시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히는데, 약점 많은 한국계학자나 전문직업인들이 교회나 한인사회의 들러리 서는데 더 중점을 두기보다는 좀 더 본분에 열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반문해 본다.

두번째 이야기는 〈쎄실·그린〉의 부인 〈이다·그린〉에 관해서다. 남편이 새벽 3—4시까지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데도 꾸준히 아이들을 기르고 같이 결혼생활을 50년이상 한, 북미수준으로는 드문 장한 여인이다. 〈쎄실·그린〉이 자기부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추켜세우던 것을 우리는 뜻있게 보아야 하겠다.

미국의 과학원이 1979년에 〈쎄실·그린〉에게 인류복지훈장을 수여할때 〈쎄실·그린〉은 자기의 성공은 자기의 부인없이는 이루어졌을 수 없으니 같이 받겠다고 주장하여서 미국 학술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 훈장이 부부에게 주워졌었다. 또 UBC가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상의해 왔을때 〈쎄실·그린〉은 다시 자기의 성공은 자기부인의 인생철학이 모든 을 제사는 법을 자기에게 가르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서 부인 〈이다·그린〉으로 하여금 UBC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게한 일이 있다. 비록 아무리 남편이 성공하더라도 50년이상 뒷받침을 하고 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님을 아는 〈쎄실·그린〉은 자기의 성공을 부인과 같이 나눔으로써 미국의 여성운동하는 수많은 단체를 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여성의 권위와 자랑스러움을 선양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계캐나다인, 한국계미국인부인들도 남편이 연구실에 간다면지, 직장에서 좀 늦게 일한다고 하면, 혹시 그 동안에 남편님이 바람을 피우지 않을까, 어디가서 술을 마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더라도 믿음으로써 남편을 돕는 그런 생활태도를 가져보면 어떨는지?

쎄실과 이다·그린은 큰 지시프스의 바위를 밀어올려 온 부부중의 하나다. 비록 우리의 지시프스의 바위는 적더라도, 이것을 같이 들면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또 인내심을 좀 가질수 있다면 무언지 이룰수 있지 않을까?

밍크

오더 메이드 전문공장

● 밍크
● 폭스
● 세블
● 라쿤

록키모피 MR. 정
315 ADELAIDE STREET WEST
TORONTO. TEL. 593-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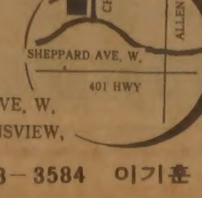
Indoor 골프장

긴 카나다의 겨울을 지루하지 않게 한자리에 모여, Swing을 배우고 연습하여 경제적이고 즐거운 겨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①공이 날아가는 것을 볼 정도의 거리
②실지 Ball을 사용
③주 1 회 이상 Lesson
③월 1 회 이상 골프영화 상영
⑤매일 무제한 사용할 수 있음
컴퓨터가 여러분의 Swing을 분석해 드드립니다.

※Member Fee(1982년11월~1983년4월)
$100.- 부부 $150.-

※초보자 특별 개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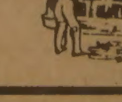
1230 SHEPPARD AVE. W.
UNIT 14·15 DOWNSVIEW.

연락장소 : 298—3584 이기훈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NORTH YORK AUTO BODY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 745 : 7400)
*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 (OVEN BAKED FINISH)
* 수리중 차량대여
* 각종차량 일체취급
* 사고시 전화문의 환영



215 TORYORK DR.
One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d.

☎ (B) 749-0555
(R) 881-4053

송 대 헌

Turtle Mother of Pearl Inc.

거북이

나전칠기공예사

각종 자개제품이 클링턴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뚜벅 뚜벅 끈기있고 천천히,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코저 걷고 있읍니다.

취급품목 : 각종 자개제품 일절

생산부 : ○커피테이블
○보석함
○구절판
○꽃 병
○자개벽걸이
○문 갑
○애기장 등등…소품부터 대품에 이르기까지

수선부 : 각종자개제품 수선일체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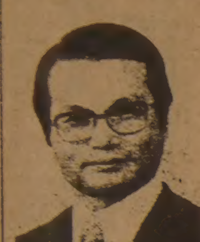
★ 특별주문 환영합니다 ★

공장 : 361 Clinton St. Tor. Ont. M6G 2Y7
☎ : (416)530—4364, 536—8018

대표 이 정 석

김택규 목사 부임

토론토 중앙한인연합교회



◆김택규목사

작년 9월이후 교회내 분규로 일부 신자들이 떨어져 나갔고, 유재진목사 사임으로 1년여동안 담임목사 없이 지내온 중앙한인연합교회(구 한인교회, 363 Sherborne St. Tor.)는 김택규 목사를 담임으로 초빙, 12월초 부임한다.

현재 미국 달라스한인연합교회에서 시무중인 김목사의 취임예배는 12월12일(일)로 예정되었다.

◆김택규목사 약력

◉한국 감리교신학대학 졸업

◉미국 남감리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서울 대신교회창설·목회

◉해군본부 군종차감 역임

◉현 달라스 한인연합교회 담임

教皇 암살기도

스페인서 3명체포

〈마드리드, 스페인〉 3명의 바스크족 테러리스트들이 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지난주 바스크반란지역을 방문하기 수시간전에 그를 암살하려다가 프랑스경찰에 체포됐다고 스페인의 공식소식통들이 9일 말했다.

이순복양 追放재판

미스서울남치소동의 주인공인 이순복양에 대한 추방재판이 12월12일로 연기됐다고 벤버이민국당국이 9일 발표했다.

이양은 9일 상오10시 추방재판에 출두명령을 받았으나 이날 변호사를 통해서 연기신청을 했다.

◆이중인생─라스베가스 플립쇼에 출연하기전 매무새를 다듬고 있는 쇼걸 데비·티의 무대 바깥생활은 9살짜리 딸을 돌보고 차는 합승해 다니는 등 전혀 다른 평범한 일상으로 둔갑한다.(뉴욕)

뜨거운 얼음도 있다

美 物理學者「제5의 얼음」증명

科學

뜨거운 얼음도 있을까? 우리들은 물이 섭씨 0도이상의 온도에서는 고체(얼음)가 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의 물리학자 퍼시·W·브리지먼(1861~1961)은 그렇지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바 있다.

즉 물은 아주 높은 압력아래서는 섭씨0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고체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브리지먼에 의해 「제5의 얼음」으로 명명된 이 얼음은 2만6백기압이라는 엄청난 압력에서 얼어져 섭씨76도에서 고체로 된다.

이 얼음은 만약 사람이 그것에 손을 댔다가는 화상을 입게된다.

그러므로 얼음에 접촉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이 얼음은 질이 우수한 강철로된 두꺼운 그릇속에서 강력한 압축기의 압력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제조과정도 눈으로 직접 볼수없어 간접적으로 파악할 따름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제5의 얼음」은 보통얼음보다 밀도가 높아(비중 1.05) 물에 가라앉는다.

〈독자의 광장〉

노소동락

조성희(토론토 교포)

어느날엔가 하도 마음이 답답하여 책을 읽기위해 도서관을 찾았다. 그러나 원하는 책은 없고, 다른 도서관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어 안타까왔다.

이런 불편에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이 가끔은 필요하다. 그것이 나의 작은 소망이다.

말로는 천년을 피하는데, 행동은 딴 짓에 통하지 않아서 고생이고, 풍토와 관습이나 이해, 감정들이 달라서 그럴 수 있다.

한창시절에 한번쯤 외국에 가서 출세도 해본다는 희망도 있었고, 누구나 세상에 발돋움할 기대와 포부가 크지만 나의 경우 여성이고, 나이도 든데다가 아이를 키우는데만 전력을 쏟다보니 지금은 나이탓인지 진전도 마음대로 안되고, 심적·육체적 건강도 양쪽으로 어렵다.

여기까지 온 많은 과정은 역사도 많고, 사연도 많다. 처음의 뜻은 아름답고 기대에 들뜨지만 막상 생활에 시달리다 보니 3강5륜이라는 윤리가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요, 존경과 사랑이지, 여기서는 희박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민온지 얼마되지 않은 날, 어느 상점에서 우편엽서를 몇장 샀다. 옆에 있던 손님이 "이곳에서 오래 살다보니 한국으로 편지를 그리 자주 안하게 됩니다!"해서 나는 멀쩡한 사람이 어찌 저렇게 냉정한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품었었다.

어떻게 하면 명랑하고 건강하고, 건설적으로 살 수 있을까? 우선은 젊은 사람들의 뒷받침이 필요할 것같다.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존경과 의논과 어느 정도의 순종과 여러가지의 좋은 내용을 그들에게 심어주기에 참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보호가 필요했지, 지금은 부모의 관심과 보호가 역겹다는 말에 눈물이 흐르도록 세상사의 변심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어떤 젊은이는 "늙은 노인네들이 무슨 돈이 그리 필요하냐?"고 하는 소리를 나이 든 우리에게 서슴치 않고 마구 말할 적에는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교육의 힘으로 그들을 감화시켜야할지 참 어이가 없었다. 세대차이라고 할까, 60이 가까운 엄마와 30대의 아이들과의 차이가 생활면에서나 정신면에서 많이 나는 것같다.

좋은 말로 타이르면 "왜 참견을 하느냐?"며 어머니를 따르는 힘보다는 이민자로서(타세계임을 인식시키며)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모순된 그들에의 교육에 앞서 질서와 순서를 이해시키기가 힘이 드는 것같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먼 곳에 가지 말라는 부모의 걱정에 서운한 대답을 하기 일쑤이다.

이런저런 사연은 많았지만 하소연해서 들어줄 사람도 없고,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우리들을 이해해 주는 정당한 이가 드문 것이다.

어느날엔가 같은 노인들 권유에 조금이라도 삶에 보탬이 되고자 아기 보는 곳에 가서 일했다.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죄도 없고 큰 과실이 없어도 그만두라는 말에 놀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진실한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고,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뿐이지, 실천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 경제적인 뒷받침이나 생활터전의 안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돕고, 사랑하고 하는 힘보다 많은 젊은이가 에고이즘에 정신만 쓰는 것같다.

이런 오해, 저런 설움 ─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도중에 혈족 가까운 친지분을 사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도 바쁜 집이어서 거칠게 살다가 심리학박사가 쓴 책을 읽고나서 자기 반성을 했노라고 얘기했다.

어떻게 하면 존경할 수 있는 분을 만나며, 어떻게 하면 재교육에 힘을 쏟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대학을 나왔다는 젊은이도 노인들에 대한 마음이, 따뜻하게 사랑과 보호를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부족한 것같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푼이라도 모아서 잘 살아보나 하는 자립정신은 훌륭하다마는 인간성의 따뜻한 면이 더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이 자주 모임이나 발표회등을 열어서 좀더 접촉이 잦은 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 것같다.

자기의 취미, 특기 혹은 장기자랑도 좋고, 그들을 표창하여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공원같은 데서 운동, 게임을 하면서 화목해 하는 중에 자기의 실력과 기능, 교양 발표를 시켜서 잘하고 못하는 것 없이 전부 노인과 젊은이들간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인생의 즐거운 맛을 보고 싶다. 어떠한 일을 하고있든 할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유용하게 쓰고, 보람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살기 위한 경쟁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도 간혹 본다. 고기도 물속에서 편해야 살 수 있을텐데 60이 넘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사는가? 그들을 믿는 수밖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많이 인도를 해주신다. 나로서는 목사님도 고맙지만 젊은이들의 발표회같은 재미있는 모임에 참여하여 자기 자신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남들보다 뒤진다고 생각되어 일어서지 못하는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말고, 숫기 없고 용기 없는 이들이 없도록 무한정 발전의 가능성을 인식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해야겠다. 캐나다 공원은 참 넓고 좋다. 그곳을 우리들의 장소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장점과 결점이 다 있지마는 자기가 짊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회비제도 좋고, 도시락도 좋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에 힘써야겠다. 참, 아름다운 반성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대화의 광장에서 우리 이민생활에 빛을 보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어려웠던 좁은 길이 넓어질 것이다.

모든이가 바쁘겠지만 서로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잘 안되고 피로운 점도 서로서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화초를 키울 때 꽃을 보자고 키우는 것처럼 우리들 자녀들도 다 그렇게 키워야겠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김장김치 주문환영
해밀톤지점 ☎:1-385-1485
서부지점 ☎:243-9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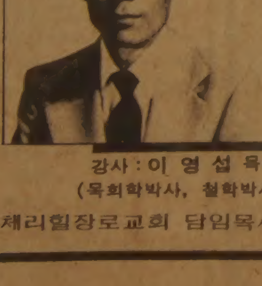
휘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인침례교회

심령대부흥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는 현대 교인을 위한 하늘나라의 메세지를 교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저 하오니 오셔서 피곤한 영혼이 쉼을 얻으시고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인침례교회 담임 홍신웅 목사 드림



강사 : 이 영 섭 목사
(목회학박사, 철학박사)
채리힐장로교회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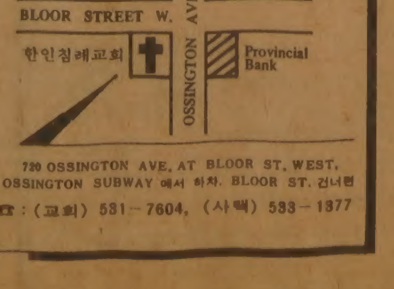
부흥회 일정

●11월25일(목) 저녁 7 시30분
"현대인의 모습" 요한복음10 : 1 －10

●11월26일(금) 저녁 7 시30분
"주께 향한 눈" 시편123편, 1 － 4

●11월27일(토) 저녁 7 시30분
"호렙산의 불꽃" 출애굽기 3 : 1 －11

●11월28일(일) 새벽 6 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후13 : 1 － 5
오후 2 시
"하나님의 뜻" 로마서12 : 1 － 2
저녁 7 시30분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갈라디아서 6 : 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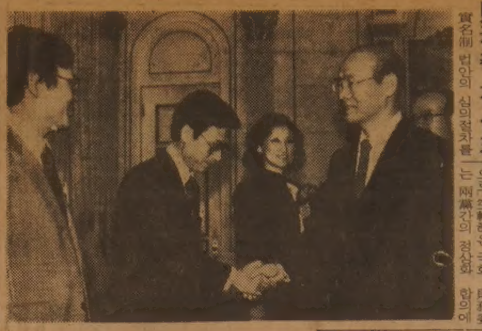


720 OSSINGTON AVE. AT BLOOR ST. WEST.
OSSINGTON SUBWAY 에서 하차. BLOOR ST. 건너편
☎ : (교회) 531－7604, (사택) 533－1377

한국일보
우리의權利를 健全한新聞

稅法案 대폭 修正될듯

財務委 정상화



實名制 법안의 심의절차를 둘러싼 民正、民韓黨의 異見으로 空轉해온 국회 財務委는 兩黨간의 정상화 합의에 따라 10일하오 전체회의를열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등 정부가 제출한 6개 稅法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財務委는 11일부터 13일까지 稅法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후 小委를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稅法案심의에 있어 民正黨은 내년도예산赤字幅을 최대한 축소하기위해 高소득층에 重課하고 각종減免稅制의 축소、새로운 稅源의 발굴등을 위해 정부案을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있고 民韓 국민당도 중소기업보호와 中·低소득층의 稅부담輕減등을 위한 세법代案을 마련해놓고있어 정부의 稅法案은 심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野黨은 정부안이 實名制실시를 전제로 마련된것이니만큼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高所得層과 대기업에 대한 稅부담을 정부안보다 높인다는데는 여야가 의견을같이하고 있으나 소득세 人的공제액의 인상、附價稅 기본세율의 인하등 기본세법에 대해서는 여야간의주장이 엇갈려많은논란이예상된다.

재무위의 李基旭전문위원은 이날 소득세법개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통해『稅額공제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輕減비율이 中·低소득층에 대한것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하고『현행17단계의 課稅단계를 14단계로 낮춘것은 상대적으로저소득층의 稅부담을 높이게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中·低소득층의 소득세輕減幅을 좀더 확대하기위해『稅率구조와 稅額공제의 조정과함께 근로소득공제율의 인상및 범위조정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法人稅法개정안에 대해 李위원은『법인세를 대폭인하、단일比例稅率에 접근시킨 것은 너무 급진적이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적정 재정수입을 확보할수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民正、民韓黨은 9일밤 잠시간에 걸친 총무단및 財務委 간사접촉을 통해 그동안 空轉을 거듭해온 財務委정상화에 합의했다.

民正·民韓黨은 이날 절충을 통해 ▲10일 하오 財務委를 정상화시키고 ▲금융實名去來法案은 稅法小委활동을 마치고 재무위전체회의에서 우선 稅法案을 처리하기전에 우선 심의하며 ▲民正黨은 금융실명거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등 5개항에 합의했다.

“韓美 民間교류 확대할때”

全대통령、자문회의참가자에 만찬

全斗煥대통령은 10일『韓美두나라는 그동안 긴밀한同盟관계의 유지를 통해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80년대에는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수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지금까지의 양국관계는 주로 정부차원의 협력에 의지해왔으나 앞으로는 양국민간의 더욱 폭넓은 교류와 접촉을 통해 협력관계를 조정、발전시킨다면 두나라 관계는새로운차원에서더욱확대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저녁 지난 8일부터 3일간 慶州에서 열린 韓美교류정책자문회의 참가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치、만찬을 베푼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과거 양국간에는 역사적、문화적배경이 서로 다른데서 초래된 일시적 문제가 없지도않았으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흡륭히 극복해 전통적인 盟邦관계를 계속 발전시켜왔다』고 말했다.

研修참가 海外동포 全大統領、초청茶菓

全斗煥대통령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車鍾煥씨(47·美캘리포니아大교수)등 해외동포 특별일 研修참가僑民 25명을 위해 다과를 베풀며 환담했다.〈사진〉

“레바논派兵 신중檢討중”

李外務답변 이미 公式要請 받았다

정부는 레바논정부로부터 평화유지목적을위해 韓國軍을 派兵해달라는 요청을받고 이를 多角的으로 신중히 검토중이다.

李範錫外務장관은 10일 하오 국회外務委에서『지난 6일 엘리아스 레바논수상겸 外相이 文昌華 한국大使를초치、한국과같은 友邦이 레바논에 兵力을 파견、多國籍군 평화군에 참여해줄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이와같은 派兵요청은 우리나라외에도 英國、和蘭、벨기에、오스트리아、스웨덴등에도 한것으로 알고있다』면서『이러한 요청을 해온것은 우리의 國威가 국제적으로 그만큼 宣揚되어있고 또한 우리 국군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장관은『그러나 이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따라서 정부는 현재 관련부처들간에 신중한 연구검토를하고 있는중이며 아직은 아무런결정을 내린바없다』고 말했다.

그는『앞으로 이문제를 연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겠으며 與野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경청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鄭基鉉 외무부대변인도 이날하오『레바논 정부가 지난6일 文昌華현지대사에게 한국군의 파병의사를 타진해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外務委의 「派兵」협의

10일하오 국회 外務委에서 李範錫외무장관이 「레바논으로부터 派兵요청」을 보고하기앞서 朴東鎭위원장과 잠시 협의하고있다。

派兵요청 3개월前부터 계획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바논정부의 다국적 평화유지군 확대노력을 지지한다는美국무성의 논평에 이어 한소식통은 10일 이러한 요청이 제마옐대통령 취임이전인 약 3개월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러한 요청이 미국에 있는 레바논系 미국인학자와 전직고위관리들에 의해 각각 백악관과 국무성에 전의형식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의 관측통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제한다면지난10월18·19일 양일간 아민·제마옐 레바논대통령이 미국을방문했을때 레이건대통령、슐츠국무、와인버거국방장관등과의 美고위관리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요청이 더욱 구체화됐던것으로 보고있다.

이관측통들은 제마옐대통령이 美측에 다국적평화군의확대、레바논의 경제재건요청에 미국이 모두 호의적인 반응을 보냈던 점과 미국의 레바논문제해결에 대한 열망、미국과한국의 깊은 유대관계등에 비추어 미국이 레바논과 한국사이에서 중요역할을 하게될것은 틀림없다고 보고있다.

이와관련、이들은 현재 訪韓중인 이글버거 美국무성정무차관과 홀드리지 東北亞담당차관보、램버슨한국과장등의 역할을 의미있게 보고있다고 말했으나 국무성측은 이글버거차관일행은 慶州세미나에 참석한 것일뿐 이문제와는관련이없다고부인했다.

“최저賃金制 조속實施를” 질문

“福祉연금 86년이전시행” 답변

豫決委정책질의 모두끝내

국회豫決委는 10일하오 사회문제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5개 分科委를 각기 열어 部別심의에 들어간다.

이날밤 늦게까지 계속된 정책질의에는 白南基(議同)趙正濟 李憲琦 南載熙 尹國老(이상 民正)李成一 姜棋弼(이상 국민) 申鎭洙 金秉烈 金燦于의원(이상 民韓)등이나서 사회복지정책과 賃金문제등을 추궁했다.

姜棋弼의원은 전체근로자 7백43만명중 月10만원미만의 월급자가 58.9%이며 10만원에서 30만원미만이 29.9%로서 이들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자들의 최저生計費보장을위해 최저賃金制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金秉烈의원은 각종성금 義捐金등 국민의 稅外부담이과중하다고 개선對策을 물었고 李憲琦의원은 소득세의 人的공제액을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최저선인 25만원으로인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밖에 의원들은 ▲實名制연기로인한 稅收결함 보전▲財閥의 금융지배 대책▲농촌의 각종稅부담 輕減▲高校平準化 재검토▲私立校 육성등에 관해 문젯점과 대책을 추궁했다.

金俊成부총리는 9일밤 답변을통해『지난73년에 제정되어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국민복지年金제도는 5차5개년계획기간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大企業의 下都給업체를 보호하기위해 현행의 公正去來法에 근거、납품代金지불 시기등을 규제하는 告示를 현재 마련중에있어 곧 발표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내년도 예산운용에서 稅收가 늘어나고 歲計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추가財政需要에 충당하지않고 國債元利金상환에 우선적으로 充當하겠다』면서『國債의연도별상환예정액은 83년 1천4백7억원、84년 3천8억원、85년 2천7백80억원、86년 이후에도 83년도 발행분상환의 일부가 남게된다』고 덧붙였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0일접수〉

보이스카우트 서울聯盟 1백59만원

銀晋物産(株) 洪淳昊사장 外 1백53만원

裕昌商事 姜大娥대표 外 30만원

동아그룹 신우회일동 20만원

▲한국보이스카우트 서울연맹 사무국장 김성태씨외 임원및 지도자·대원(대표 배문동2년 김용진、잠원국교6년 장황필、인솔이재춘부장) 일동=1백59만2천1백35원 【소년한국접수】

▲銀晋物産(株)사장 洪淳昊씨외 임직원一同=1백53만8천5백60원

▲裕昌商事(株)대표이사 姜大娥씨外 임직원一同=30만원

▲在美나이트클럽뉴욕사장 이병혜씨=美貨5백달러

▲在美씨론홀대학3년 조기희嬢=美貨2백50달러 【뉴욕지사접수】

▲在美콜럼비아대학1년조미숙嬢=美貨2백50달러 【〃】

▲在美뉴욕교포 여성구씨=美貨1백달러 【〃】

▲在인도네시아교민7명=美貨2백92달러 (김병관씨=인도네시아貨5만루피아、차태식씨=5만〃、이한범씨=2만〃、주창경씨=2만〃、임창호씨=2만〃、문재섭씨=2만〃、장인식씨=2만〃) 【자카르타지국접수】

▲동아그룹신우회 (본사및 사우디 라야드주본·렉스·티아피신우회) 一同=20만원

▲(종단)大巡眞理會 서울동부1지구대표 김춘선씨외 道人一同=10만6천원

▲(종단)大巡眞理會서울지방4지구 대표 안승회씨외 道人一同=10만5천원

▲(종단)大巡眞理會 忠北옥천지구대표 이상훈씨외道人一同=10만3천원

▲(종단)大巡眞理會부산서구감천동7지구 대표 나석찬씨외 道人一同=10만원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아리교회 (목사 방병덕) 교우一同=10만원

▲大韓毒劇物協會회원一同 (추가분)=10만원 (회장韓基允씨=6만원、노범산업사 한주일씨=3만원、신성산업사 황순부씨=5천원、덕성화공 최유학씨=5천원)

▲中區南山洞1가6의3 車福女씨=3만원

한국일보文化센터 겨울講座會員접수중

내일 중부 零下圈

오늘부터 全國 초겨울추위

겨울을 재촉하는 늦가을 비가 그치면서 초겨울 추위가 닥쳤다.

우리나라 남북에 걸쳐있던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진가운데 지난9일부터 강한바람과함께 전국적으로 비가내렸는데 東草지방에 최고76.7㎜의 강우량을 보이고 10일하오부터 그쳤다.

중앙기상대는 북서쪽으로부터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이 밀려와 11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하고 12일에는 기온이 더내려가 중부·내륙지방은 0도로 전국이 쌀쌀한 초겨울의 날씨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원도 雪嶽山일대에는 10일 상오 11시 현재 강풍과함께 눈발이 휘날리고 있다.

한편 기상대는 10일상오를 기해 전해상에 예상풍속14~20m、예상파고3~5m의 폭풍주의보를 발표했다.

海上엔 폭풍注意報

天馬圖 국보로지정 堤岩里는 史蹟으로

10일 문공부 문화재위원회는 천마총1백55호 고분에서 출토된 天馬圖障泥를 국보로、3·1운동堤岩里 사건현장을 사적으로 각각 지정키로 의결했다.

JCI참가 比首相 金總理가 招致만찬

金相浹국무총리는 10일 하오 三淸洞공관에서 국제청년회의소(JCI) 세계대회에 참석키위해 來韓한 세살·E·비라타 필리핀수상을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社會漫評

「복부인」인지 「떡부인」인지…

地平線

35년이상을 교직에 몸바쳐온 토머스·아퀴나스 金南성요셉여고 교장(66)이하 1천8백5명의 교직자들이 어제 教聯대의원회의에서 연공상을 받았다. ▼말이 쉽지 35년이상이란 세월은 길고도 아득하다. 한평생을 교육에만 전념하고、모진 사교회풍파에 시달리면서도 곁눈질할줄모른 이들 스승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분들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교육내용은 까다로와지고 스승의길도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교권수호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을 위한 5개항의 결의문을채택한 것만봐도 오늘의 시대상을 엿볼수 있게한다. 교권보호법제정、중앙교육위원회 부활、교원복지센터 건립등이 당면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教師像을 우러러 보는이는 많지만 그에 알맞을 만큼 대부분의 교원들이 처우를 받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것이 작금의 실상이다. 단순한 지식전달에 그치지않고 德性과 情緖교육까지 책임진 이들 스승에게 물질적인 처우는 둘째치더라도 인격적인 존경마저 안하고 있는것이 우리 현실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사도강령이 생기고 스승존경 캠페인、恩師찾아뵙기 운동까지 벌이는 참이다. 언젠가 섬사람들마저 우습게 아는 미천한 자리라고 일선교사들이 한탄하는 글을 본일이있다. 어느새 우리사회의 교사상이 이토록 땅에떨어지고 教權회복을 입아프게 외쳐야하게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옛날엔 우리사회의 선각자는 거의가 교육자였다. 『더없는 나를 미워하시고 재주있던나를 사랑하셨다』는 素月의 詩에 나오는 스승은 나중에 曺晩植선생으로 알려졌지만、우리민족의 힘을 기르기위해 務實力行、德體智三育을 부르짖은 安昌浩선생도 교육자이시다. 요즘 TV에서 放映중인 李容翊선생은『국가의 독립은 人材의 교육에있은즉 학교를 많이설립하여 人材를 양성해야하되 官立학교는 日本人의 沮戲가 있을것이니 京鄕각지에 私立학교를 많이 설립해야 된다』는 遺疏를 남긴분이다. 中央高普、普成專門이 그李선생에의해 설립된것은 널리알려진얘기다. ▼서울·부산의 국민학교에서는 여교사들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세상이다. 남선생이나 여선생이나 남의자녀를 자기 친자식 못지않게 돌보고 글을 깨우쳐주는가하면 정의관념을 심어주고 이웃을 사랑할줄아는 참된 위인으로 이끌려한다. 그 은혜、바다처럼 넓고 깊다 하겠다. 이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야 헌신이나 봉사에도 눈을뜨고 사회정의、복지사회도 다가서 온다는 것임을 잊어 안되겠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준선
〈R〉 (416)633-7892 (David Chae)

임시총회 소집공고

토론토지구 한인회 83·84년도 회장단 단일후보에 대해 회칙 8조2항에 의거 인준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총회에는 82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입장이 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시: 1982년 11월27일 하오2시정각
장소: 한인회관(20 Mobile Dr. Tor. Ont.)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직무대행 부회장 고순복

1983-1984년도 토론토지구한인회 회장단입후보 등록공고

1982년 10월27일자로 하기 한인회장단 입후보자의 입후보등록을 회칙 28조4항에 의거 필 하였음을 공고함.

◉회장입후보: 장순채
(49세, 전남대농대, 아리랑식당경영)

◉부회장입후보: 이기훈
(43세, 경희대졸업, 무나미트로피 경영)

◉부회장입후보: 변의섭
(37세, 한양대졸업, 하드웨어경영)

한인회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蘇 백파이어 機 캄란灣 배치

美 7함대 極東활동 차단

美대사관, 日 外務省·防衛廳에 통고

【東京=宋孝彬特派員】미국은 極東소련군이 장거리폭격기인 백파이어를 시베리아沿海州에 배치한데이어 베트남의 캄란灣에도 배치했다고 駐日美軍사령부와 駐日대사관을통해 일본外務省과 防衛廳에 9일 각각 통고했다.

행동반경 4천㎞와 시속마하 2·5인 백파이어가 캄란灣에 배치됨으로써 소련의 極東및 東南亞의 군사력은 대폭강화됐다고 이곳 군사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일본의 방위전문가들은 또 백파이어가 캄란에 배치된것은 소련이 美7함대의 인도양및 中東지역에서의 자유로운 전개를 저지하고 일본과 극동 각국海上路를 차단하는데 그목적이 있는것 같다고 분석하고있다.

防衛廳당국은 미국의 와인버거국방장관이 동남아각국을 巡訪, 소련 백파이어의 캄란배치에 따른 아시아각국의 협력강화를 요청했으며 85년이후 미자와(三澤)기지에 F16機를 배치하는것도 소련의 南下정책에대한 봉쇄전략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蘇軍등 2천7백명의 窒息慘事낸 「살랑」터널

지난주 유조트럭과 蘇聯수송차량의 충돌로 1천~3천여명이 질식사하는 참사를 낸 아프가니스탄 살랑터널의 북쪽입구。해발 3천3백m의 힌두쿠시산맥을 관통하는 길이 2천6백80m의 이 터널은 카불과 蘇聯접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요지。【이슬라마바드9日AP합동=聯】

F16機의 日配置에 蘇, 日政府에 항의

【모스크바AP=聯】소련은 9일 미F16전폭기의 일본배치계획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이같은 계획을 저지하기위해 모종의 『방어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일본정부에 경고했다.

소련관영타스통신은 크렘린당국이 일본정부에대해『F16기의 일본배치계획으로 소련은 일본영토로부터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방어적조치를 취할수밖에없다』고 통고했다고 보도했다.

教皇암살기도 佛경찰 사전摘發

【마드리드AFP合同=聯】바스크 테러분자 3명이 지난6일스페인을 방문중이던 요한·바오로2세 로마교황암살계획을 행동에옮기기 10시간전에 프랑스국경지역에서 프랑스경찰에 체포됐다고 스페인국영EFE통신이 9일 보도했다.

EFE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인용, 스페인의 차기수상이될 펠리페·곤살레스사회노동당당수가 지난5일 피에르·모르와 프랑스수상에게 전화를걸어 바스크분리주의단체인 ETA가 교황의스페인방문기간중 그를 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한데따라 프랑스정부가 즉각 수사에나서 국경지역에서 ETA정보책임자 페이오·안트솔라·라라나가(46) 재정책임자 카를로스·이바르구렌(43) 사빈·사비에타등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4백50명 집단脫出

아프간政府軍 武器갖고 回教叛軍에

【이슬라마바드UPI AP=聯】소련의 무력지원을받은 아프가니스탄정부군 약 4백50명이 최근 탄약과 무기를 갖고 회교저항단쪽으로 집단탈출한것으로 파키스탄에 뒤늦게들어온 보고들에 의해 밝혀졌다.

파키스탄국경촌락인 페샤워르에 있는 게릴라소식통들은 회교반군이 지난30일 수도 카불북쪽1백㎞의 판지세르계곡에있는 슈톨정부군전투진지에대해 강력한 공격이 성공한후 그와같은 정부군대량이탈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이 공격에서는또 정부군 약1백50명이 사살됐을뿐만아니라 정부군진지도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도에따르면 반군은 지난달23일 카불남쪽 아프간의 제2도시인 칸다하르市근처에서 5일간의 치열한전투에서 아프간정부군및 소련군병력 약2백명을 살상하고 전차와 군용차량 6대를 파괴하는등의 전과를 올렸다고한다.

유럽35國 安保協力 회의

8개월 空白깨고 마드리드서

【마드리드AFP合同=聯】35개국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지난3월이래 8개월동안 계속되어온 공백상태를 깨고 9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회의를 재개, 공산권에서의 정통하는 인권탄압과 관련한 동·서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위한 토의에 들어갔다.

서방및 중립국대표들은 이번 마드리드회의역시 2년전 CSCE가 태동했을때의 기대대로 동·서데탕트를 소생시킬만한 조치가 마련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내다보았다.

CSCE는 미국을 주축으로한 서방측이 지난3월 폴란드계엄정권의 압제에 항의, 회의를 일방적으로 보이코트함에 따라 중단 마비상태에 있었다.

맥스·M·캠펠먼 美대표단장은 『불행한 조짐이 감돌고 있다. 공산국가들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은 개선은 커녕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서방대표들은 시종 침울하고 회의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3시간동안의 개막식에서 소련과 폴란드가 동·서 협력및 인권신장에 관한 75년 헬싱키협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맞서 폴란드를 비롯한 공산국들은 서방, 특히 미국이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터키大統領 에브렌 국민91%支持 당선

【앙카라AP=聯】터키최고선거위원회는 9일 터키국민이 지난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새헌법을 승인하고 軍政통치자 케난·에브렌 장군을 임기7년의 제7대 터키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공식발표했다.

韓國경제 착실成長 濠洲경제지

【홍콩=聯】日本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경제는 순조로운 진전을 보이고있다고 濠洲의 오스트레일리안·파이넨스·리뷰誌가 9일자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리뷰지는 한국경제기획원 관계자들의 말을빌어 새해의 전망은 올해보다도 더욱 밝을것이라고 전망했다.

人事異動

經濟企劃院 ▲去來課長 李根植 ▲企劃1課長 李南劃 ▲制度運營課長 吳斗鉉 ▲非常基 ▲投資計劃課長 趙豪甲 ▲非常計劃官室 李鍾和 (10日字)

本社來訪

▲笹川良一씨 (日本船舶振興會長) ▲黃彰經씨 (曹溪宗總務院長) 인사차

지각 7년…월남參戰 퍼레이드

촛불禮拜… 戰死者호명 56시간걸려

1만5천 參戰者 워싱턴서 行進도

1975년 越南戰 종료후 처음으로 越南戰 전사자, 부상자, 참전자를 위한 기념행사가 10일 시작돼 오는13일까지 실시된다. =

워싱턴에서는 10일부터를 越南참전용사주간으로 지정, 기념행사퍼레이드, 음악회, 추도예배, 토론회등 갖가지 행사에 이어 13일에는 워싱턴 링컨기념관옆에 건립된 참전용사 기념비제막에서 이 행사는 절정을 이루게된다.

재향군인의 날인 11일을 전후해서 실시된 이같은 대대적인 행사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紙는 미국에 만년상처와 피해를 입혔고 물의를 일으켰던 越南戰 종료 7년만에 2백70만 참전자, 5만7천9백39명의 전사자및 실종자들에게 비로소 국가적인 감사와 조의를 표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紙의 지적대로 이것은 越南전후 미국이 참전자들에게 베푸는 첫 환영행사이자 추모행사이다.

참전용사기념기금의 잔·스크러그스회장은 스스로 참전했으면서도 스스로 비난했던 越南전이 이행사를 계기로 역사의 章으로 묻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상오 10시부터 시작된 일련의 기념행사중 장장 56시간에 걸쳐 위스콘신街와 매사추세츠街 사이의 워싱턴 대성당에서 거행된 촛불예배에서는 全 전사자 실종자의 이름이 호명됐고, 11일 엘링턴 국립묘지의 추념식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참석토록 요청됐었다.

이 워싱턴 기념주간행사에 참석키 위해 50개주에서 각각 8백내지 1천3백명의 참전용사들이 워싱턴에 몰렸으며 주최측은 시내 4개 호텔을 지정, 육해공군 해병대별로 등록을 받았다.

미의회내 참전동지회가 주관한 토론회, 각종 기념관 개소식, 음악회외에 번 행사는 13일 상오 약1만5천명의 당시 참전자들이 군기를 앞세운 워싱턴종단가의 행진에 이어 하오에는 그간 월남전 자체 말들이나 물의를 빚던 기념비제막, 일요일인 14일에는 전쟁으로 비롯된 갈등의 화해를 기원하는 대예배로 막을 내리게된다.

참전용사들은 이번 행사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원했던 바라고 말하고 미국시민이 우리에게 이런행사를 베푸는 것은 미국이 이제 월남전의 상처에서 치유되고있음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행사를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는 『이 행사와 기념비는 결코 월남전을 정당화하거나 영광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오랜 망각에 종지부를 찍고, 전사자를 기억하고 참전자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감사를 표하면서 그 전쟁에서 비롯된 숱한 문제들을 아물게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李文熙特派員】

社說

內需振作의 새局面

—過剩消費경계, 輸出伸長 잊잖도록

경제정책당국은 국제경기의 장기침체속으로 앞으로의 수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목표(7·5%)를 달성하려면 內需부문의 신장에 총력을 경주해야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다.

內需진작의背景으로는 최근 국내경기가 완만하나마 上昇勢로 돌아서게 된것과 그두드러진 원인이 그동안 정부서 추구해온 경기활성화대책의작용으로 분석한데 있어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여건진전과 함께 내년에도 경제성장추세를 지속하기위해서는 지금까지 비교적 등한시해 오던 내수부문을 보다 중시하면서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판단에 기초를 두었을것이다.

이에따라 국산기계자금(2천억원)방출을 통한 그기계류의 受注증대및 수입代替를 촉진함은 물론 자동차 가전제품같은 耐久性소비제품의 판매촉진을위한 信用판매회사의 설립지원등, 다각적인 내수기반확충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한다.

경제란 수요創出이건 供給重視건 할것없이 需給관계가 조화있게 균형확대하는가운데서 성장발전을 기약할수있는것임은 길게 말할 나위가없다.

공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데 수요만 늘어난다면 이는 곧 인플레要因으로 전화될것이고, 부족한 국내공급을 보충하기위하여 輸入門戶를 개방하면 그만큼 국제收支에 부담을 안겨주게 될것은 뻔하다.

그래서 종전에는 국내소비를 되도록 억제하는반면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力點을 두면서 공급능력을 확대시켜 왔었다.

내수보다는 수출을앞세움으로써 국제수지를 악화시킴 없이 공급능력증대를위한 산업투자를 계속하는가운데 산업고도화를 꾀하고 고용정책에도 이바지 할수있도록 애썼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요몇해사이 內外與件변동으로 그런 상황조건이 크게 달라진것 또한 부인할수 없다. 국제불경기때문에 수출伸張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반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그간 꾸준하게 추진해온 생산설비의 新·增設로 국내공급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게 됐다.

따라서 수출증대가 앞서거나 국내수요가 뒤따르지 않는한, 국내산업(설비)의 가동률은 상승할수 없는 실정이며 고용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기 쉽게 되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그동안 되도록이면 억제해오던 내수부문을 확대시키기에 이르렀다고 보겠다.

특히 重化工業투자로 質量 共히 괄목할만큼 늘어난 국내 플랜트제조업이나 기계류제조업은 注文이 없어 부분적으로 運休를 해야할 형편에 놓여있음을 생각할때 이들을 겨냥하고 내수경기에 불을 당기는 정책구상은 대체로봐서 타당한것으로 평가된다.

그뿐아니라 그동안 高率특별소비세부과로 소비를 최대한 억제해오던 자동차와 고급家電제품등의 세금을 내리고 소비자금융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이들부문에서만도 커다란 가동률의 향상과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바랄수 있으며 그에따른 경제성장寄與度가 상당할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다만 이들산업이 비록 내수경기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外貨부담을 隨伴하게되는 輸入의존적인 성격을 벗어나지못하고 있는 만큼, 그 소비를 무작정 조장하는데 따른 문제점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겠다.

예컨대 實需要者와 연결시키지못하는 住宅경기 진작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요즘 投機를 불러일으키게된 사실이나 무분별한 소비助長이 국민의 貯蓄심리를 크게 둔화시킬 위험성을 낳게하는따위, 應外현상같은 것은 경시할바 아니다.

우리의경우 경제成長을 지속하기위하여 국내需要를 진작시키는것은 분명히 그 一助가 되겠지만 輸出신장없는 內需경기란 언제나 스스로 限界가 있음을 잊어서는 더욱 안된다.

地下工事 그安全과補償

—「말없는 被害」外面할바 아니다

서울과 釜山 두 대도시에서 진행중인 地下鐵工事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야기시키고 있다.

그중 가장 큰것은 말할것없이 안전施工에 관한것이다. 그동안 서울의 2~4호선지하철工事場에선 大小의 붕괴사고 1백34건(사상70명)이 발생, 그때마다 충격과 물의를 빚었음은 우리들이 다 겪은대로다. 서울시지하철公社는 3·4호선의 47工區중 80%이상인 38工區에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얼마전 밝힌바있다.

비단 지하철공사만이 아니라 건물을 짓거나 地下商街·地下道를 건설하는 工事의 경우에도 땅속을 깊이파는 役事는 불가피하다. 특히 고층건물일 때에는 地下로도 2~3층정도나 깊이 파야하니 이에 따른 난제들이 생겨나지 않을수 없다.

각종 산업, 특히 공업이 발전하는데 따른 이런 문제들은 농업이 中心산업이었던 시기엔 없던 새로운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상황에 대처하기위하여는 첫째로 안전한 工事를하고, 둘째로 工事場주변의 市民財産과 生業에 미치는 不便에 대해 民事上처리를 하게하는 두가지基準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해진다.

건설부는 지난9일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 건축을위하여 土地를 굴착할때에 지켜야할 安全에관한 기준을 마련한것으로 보도되었다.

하나 이 安全工事 못지않게 큰 관심의 대상이되는것은 工事場주근에서 지금도 당하고있는 사람과 財物에 미치는 피해의 방지며, 그 처리기준이라할것이다.

이에 관해 現行法은 ①오물같은 地下시설을 할때에는 경계로부터 2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하고 ②地下室工事등을 할때는 그 깊이의 半이상의 거리를 두게 되어 있다(民法 제244조). 또 ⑧土地소유자는 土地의 소유권(使用·收益·처분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수있고, 방해할 염려가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수있는(同2백14조)한편 ④매연·熱氣·음향·진동등으로 이웃 土地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生活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지고 있다(同제2백17조).

이들 규정은 물론 地下鐵같은 大型工事를 대상으로해서 立法된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地下鐵이나 기타 大型工事와같이 땅을 깊이파 重機등을 이용하여 굉장한 음향과진동을 불가피하게 내는 경우에 적용될수는 없을것 같다.

하지만 여기 引用한 民法規의 정신은 현재 진행되고있는 大型地下工事 때문에 그 이웃 주민들이 받고있는 불편·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간접적인기준으로 삼을수는 있을법하다.

地下鐵·地下商街·地下道·고층건물등을 위한 工事는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 工事의 대부분은 경제적·사회적으로 국가의 이익과 市民의 복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들이다.

따라서 이런 工事들을 한편으로 安全本位로 진행시키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이들 工事때문에 多數를위하여 必須的으로 치러야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甘受하는 隣近市民들의 피해를 적정히 보상하는 제도및 절차는 분명히 確立해야 옳을 일이다.

公共必要에 의하여 재산권을 收用·使用 또는 制限할때에는 公共과 관계자의 利益을 정당하게 衡量하여 정한다는 憲法(제22조)규정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大型地下工事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받는 재산권의 사실상 제한현상과 環境보전法에 규정한바 소음과 진동으로 住居生活의 靜穩을 침해받는데 대하여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行政府나 立法府의 적절한 배려와 對策을 請해두고 싶다.

記者의 눈

아프간의 뉴스源

지난 79년 12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이 사태를 소련版 베트남전쟁의 시발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아프간사태를 제국주의군대와 민족주의군대가 엄겨룰어 끝없이 싸우는것은 수렁이될 것이라는 예측들이었다.

이런 예측들은 어느정도 적중되었다. 그동안 반군들의 항쟁은 줄기차게 계속되는 가운데 공산주의의 이념對 회교·소수민족의 저항이 깊은 반복상태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 수렁의 깊이를 더욱 절감하는 것은 서방언론인것같다. 아프간전체가 서방언론이 접근할수 없는 수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이웃나라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와 뉴델리發로 보내는 아프간소식은 항상 어둡고 칙칙했다.

1주일이나 늦게나온 살랑터널사고도 예외는 아니다. 길이2·6㎞, 높이7·6m의 터널에서 충돌사고로 2~3천명의 소련군과 아프간민간인이 사망했다는 것은 잘믿기 어려운 규모다.

사고원인으로는 소련군이 오판으로 터널을 봉쇄했고 추위를 면하기위해엔진을 계속가동함에따라 배기가스량이 크게 늘어나 결국 질식사망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터널은 해발3천3백m의 힌두쿠시산맥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련국경이 가까와 주민수가 많지않은 것을 계산하면 다분히 침소봉대된느낌이다. 뉴스源이 뉴델리와 이슬라마바드등지의 反아프간정부적인 외교소식통이나 반군소식통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당초 완강하던 반군들은 장비가 부족하고 강력한통일조직을 갖지못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련군에 큰 타격은 못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저항군의 전과보다는 사고등의기사가 더 자주 눈에 띄고있다. 이번사고에서 소련군 사망자가 7백명이라고 보도되고있는 것도 이러한예에 해당될 수 있다.

황당무계한 유언비어나 과장자체가 뉴스가될 수없음은 아무리 유명한 외국통신사가 보낸 기사라도당연하다. 이 사고도 확인되지않고 끝나버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2~3천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일단 큰 기사이다.

아프간사태를 보도할 때 흔히 정보의 유통이 자유롭지 못할수록 유언비어나 과장의 폭도 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실감한다. 【朴來富기자】

政局往來

"民正은 「空轉」해명하고 民韓은 「참석거부」의견 밝혀라"

◆희망과自信갖고 더욱 분발해달라

全斗煥대통령은 10일하오 청와대에서 해외동포 참가교민들과 다과를 함께 들며 『낯설고 물선 남의나라에서 훌륭하게 기반을 닦아나가고 있는 여러분이야 말로 훌륭한 개척자이며 애국자』라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

全대통령은 또 『제5공화국은 一人장기執權의 방지등 한국실정에맞는 민주주의를 착실히 다져 나가고 法에 의해 人權을 확고히 보장하는 등 구시대와는 다른 새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모든국민이 합심해 창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대로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면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실정에 맞는 민주주의가 이땅에 확실히 뿌리를 내리게돼 여러분의 조국은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게 된다』며 『희망과 자신을 갖고 각자자기위치에서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

◆空轉책임놓고民韓·국민·議同舌戰

實名制파동으로 9일간의 空轉끝에 가까스로 續開된 10일하오의 국회財務委는 시작부터 각정당의空轉책임을놓고 賊反荷杖論을 전개.

회의벽두 朴泰俊위원장이 『그동안의 의사진행에 위원장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인사와 더불어 순조로운 의사진행을 당부하는 순간 民韓黨의 金文元의원이 『民正黨이 국민, 議政동우회의 협조를 얻어 회의를 強行한 책임을 지라』고공격.

이에 朴위원장은 『空轉은 재무위를 넘어 정치차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정치적절충을 벌이다 보니 공전됐지만 1차책임은 나에게있다』고 무마작전.

그러나 국민당의 趙炳鳳의원이 나서 『民韓黨이 책임소재를 묻는다면 참을수없다』면서 『民正黨은 空轉사태에대해 해명을하고 民韓黨은財務委참석거부에 대한 의견을 당당히 밝히라』고양당을한꺼번에공격.

그러자 民正黨의원들의 표정도일그러지기 시작했고 民韓黨의 金承穆의원이 『국민당과 議同이 야당이라면 우리 民韓黨과 보조를 같이해야할것아니냐』고 꼬집은뒤 정부와 民正黨에 대해서도 한바탕 불만을 터뜨리고는 『常委운영을 위해 간사가 합의각서를 주고받는 것은 처음 보는일』이라며 두루비난했다.

화가난 林采洪의원(議政)이 나서 『속담에 부처도 세번건드리면움직인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국민당과 議同이 民韓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섭섭하다』고 유감을 표명。

이어 李聖秀의원 (국민) 은 『황금같은 시간을 공전시켰다는 것은 제1、제2당과 정부가 책임을져야할사항이라』며 『우리는是是非非를 가리는 제3당의 입장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데 金承穆의원의 「야당云云」은 매우 불쾌하다』고 반격했다.

舌戰이 계속되는동안 李鍾贊民正黨총무가 달려와 이를 지켜봤는데 停會가 선포되고 난뒤 民正黨의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야당측의 발언에 대한 대응발언여부를 검토했으나 문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않기위해 참기로하고 회의를 40여분만에 그대로 속개시켰다.

◆당초派兵요청부인에 묘한 해명

「레바논 정부의 한국군파병요청說」에 대해 지난8일『공식요청을 받은바 없다』고 줄곧緘口 부인해오던 외무부는 10일하오 李範錫장관이 국회외무위에서 보고한것과때를 맞춰 鄭基鉉대변인을 통해 『지난 6일 레바논 외상이 文昌華대사에게 파병문제를 거론해왔다』고발표.

외무부의 이같은 발표와관련 『지난6일 통보를 받고도 8일에 그사실을 부인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받은 한관계자는 『지난6일에 그에 관한거론이 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事前의사타진으로 알았다』면서 『그후 레바논정부로부터 더이상의 거론이 없기때문에 오늘레바논측의 제의를 공식요청으로 받아들이게된것』이라고 해명.

◆「愚問愚答」은 眞意잘못 전달된것

지난번 국회商工委에서 資源관리법 발언을 놓고 「愚問愚答의 紅疫」을 치렀던 徐相喆동자부장관은 『眞意가 잘못 전달돼 개인으로서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속사정을 호소。

徐장관은 10일 국회기자실에 들러 『상공위가 열리기앞서 위원장실에서 자원관리법안을 놓고 여 야의원들의 贊反토론이 한창이었다』고 傳言。

그는 특히 『석유사업법과 자원관리법을 비교 검토한바는 없으나 서로相衝되는점은 없다고본다』는 문제의 대목과 관련, 『개회전에 이문제를 충분히 논의했기때문에 두법안의 성격을 생략한채 단지 두법안에있는 연료비축부분과 연료시설확장부분의 내용이 상충됨이없음을 답변했던것』이라고 의례적인 平凡한答이었음을 거듭설명했다。徐장관은 또 「특별법 優先원칙」 부분에 대해서는『표현의 부족이었다』고 自認한후 『단지 戰時대비법이기때문에 비상시에는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취지였다』고。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황
536—6250 호세환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864-9347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한국軍, 레바논에 갈것인가…

外務部、공식요청받고 검토중이라는데…

그 利害得失

"中東평화기여" 명분확실

左右분쟁 말려들 걱정도

◇베이루트의 美海兵隊 베이루트에 국제平和군으로 상륙하고 있는 美해병대 추가병력. 한국군도 이런상륙을 할지에대한 확답은 아직없다.

한국군이 레바논에 갈것인가. 레바논정부가 현재 레바논에 국제평화유지軍을 파견하고있는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등3개국외에도 한국과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등에 派兵을 요청했다는 최근의 외신보도로 국민들의 耳目은 實名制와 資源관리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외무부로 쏠리는 것 같다.

외무부는 10일하오『派兵요청을 공식으로 받았으며 이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외무부는 한국군의 레바논派兵이 中東지역을 포함한 제3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派兵으로 우리가 얻을수 있는 得과 그로 인해 잃게될 失을 고려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들도 派兵찬성측과 파병으로 인해 초래될지 모르는 외교적불이익을 내세우는 반대론이 조용히 맞서고 있어 이문제에관한 결론은 쉽게 나올것 같지않다.

여하튼 이문제는 대내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측면도 고려돼야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외교의 장래도 看過할수없기때문에 다각적으로 우리의 利害得失을 분석한후에 방향을 결정해야한다.

우선派兵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中東平和에대한 한국의 기여란는 명분론을 들수있다. 레바논은 75년은 左右派간의 內戰으로자체혼란에 빠진데다 금년에는 右派지원세력인 이스라엘 左派와 그지지세력인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폐허가 됐고 미국의 中東평화정책에 의해 현재 多國籍국제평화유지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아민·제마옐 레바논 대통령은 4천명의 국제평화군은 베이루트市에만 주둔하고 있기때문에 레바논全域의 치안유지를 위해선3만명의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점을 역설,한국도이에 참여해주길 요청해온것이다. 派兵찬성 의견은 레바논과 한국과의 우호관계나 中東지역에서의 우리의 利害관계를 고려할때 우리가 平和軍을 파견하는데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보고있다. 일본이 금년에 시리아에서 공관장회의를 갖는등 中東문제에 적극적인태도로 對外정책을 전환한점을 보더라도 中東지역에많은수의 근로자를 진출시키고있는 우리가 中東정세에 袖手傍觀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 외교소식통은『한국이 서방선진국들과함께 파병요청을 받은것은 한국의 국제적지위가 그만큼 높아진 증거』라면서『이번 기회를 한국이 국제문제에능동적으로 관여하는 계기로 삼가야한다』고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북한이 분쟁지역에 게릴라훈련교관을 파견하고 銃砲등 무기를 지원하는점에 비추어 우리는 전투요원이 아닌 질서유지를 위한 治安軍의 역할을 맡게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이미지를 심을수 있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도 이문제에 비상한관심을 보이며 派兵을 희망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레바논은 戰後복구사업으로 1백50억달러상담의 건설계획을 갖고있으며 한국군이 派兵될경우 우리건설업체의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이 분명하기때문이다.

반면 派兵을 부정적으로 보는이들은 현재 제마옐 대통령에 불만을 품고있는 強硬아랍국가들과의 관계악화를 들고있다.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등 소위 아랍강경그룹은 미국의 레바논정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있으며 한국이 이에찬여할경우 국제무대에서 악영향을 미칠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全대통령의 아프리카 巡訪으로 제3세계국가들과 유대강화의 터전을 마련한 시점에서 파병으로 인해 모처럼구축한 비동맹외교기반에 혹시나 지장을 주지않을까하는 우려이다.

물론 한국은 이스라엘과 아랍세계간의 마찰에서 中立노선을 취해왔으며 최근에는 親아랍정책으로 旋回한것도 이들 강경아랍국들의 외교에 동조했기때문이다. 또 국제평화군 참여국들이 모두 親美국가들인데다 레바논 平和문제에있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간에 異見이 없다는점도 강경아랍圈이 한국의 파병에반감을 가질요인이 된다.

한국이 미국의 의사에따라 左之右之된다는 인상을 주는것은 우리나라의 비동맹외교정책에 바람직한현상은아니란견해인것이다.

뿐만아니라 多國籍 평화군은 유엔의파견軍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일체의경비를 自國서 부담해야한다.

외국의 경비부담으로 파병할경우 傭兵이란 인상을줄수있다는점에서 경비의 자국부담은 오히려 大義를찾을수도 있는것이긴 하지만 우리현실에 비추어 부담스러운조건이 될것이란는 우려이기도하다.

또 치안유지軍이라고는 하지만 레바논政情이 아직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左右派의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도 일단고려해야 하며 PLO 잔존세력의 도전또한 염두에 두어야한다는큰거이기도하다.

그러나 得失면을 감안할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한 주변 아랍국가들의 반응을 먼저 타진해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 국가들은 레바논이 같은회교 현제국으로 주권과 영토가 빠른시일안에 원상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親美세력이 레바논에서 군사적優位를점할경우 소련을자극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中東지역에 세력을 확장하려는 強大國들보다는 정치적이해관계가 없이 임무만끝나면 곧장 철수할것이 분명한 한국과같은 나라의 派兵을 바라고있을가능성이 짙다는 분석도있다.【李在武기자】

메아리

장터에서

全南과 慶南의 경계지방에서 5일 장으로 가장 유명한곳이 花開場이다.慶南 河東郡 花開面의智異山밑에 서는 이장은 全南北과 慶南의 3道사람들이 모인다고해서 예부터일러왔다.河東과求禮로 나가는 버스는 蟾津江을 끼고가다가 이 花開장터앞을 지난다. 名物치고는 생각보다 너무 조그만 장터이지만 높은山이 둘러서고 맑은 江물이 곁을돌아나가 장이서면 신선들의 잔치마당 같겠는데 불행히도 가던날이 장날이 아니었다.

대신 全南求禮邑에 장이섰다. 求禮장도 인근에서는 順天장、南原장등과함께 큰 장의 하나로 친다. 역시 智異山밑이라 山아낙네들이 산나물과 藥材를 가지고내려와 求禮장은 山香이 물씬 난다. 빨간 山茱萸열매와 머루보다 알이 작은 전금도 이장의 特産이다.

장터는 예나 이제나다. 상설시장이 어디나 있지만 5일장의 盛勢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求禮장의 하루 매상은 상설시장에서 평일에 파는 액수의 10배이상이라고 한다.

장은 東西를 막론하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인류의 생활풍습일 것이다.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조그만 시골마을에 장이 서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었다.

장터는 예대로되 세월따라 상품은 바뀌어가고 장사꾼의 장비가 달라져간다. 대장장이가 여전히 있지만 풀무는 모터로 움직이고 약장수도 아직 퇴물이되지 않았지만 무선 마이크로 呼客을 한다.

求禮장에서 가장 나이많은 상인은 올해 73세의 金基洙노인이다. 20세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50년이상 이장에서 저장으로 옮겨다니며 장돌이생활을 해왔다. 반세기의 세월을 길바닥에서 흘렸다.

日政下에서 장사를 처음 시작한 때는 거의가 통제품이어서 동정지、허리끈、모기장 따위를 팔았는데 지금은 대추、은행、상치씨、청각、비짜루등 山海物을 늘어놓고 있다. 하루 잘팔면 2만원정도의 매상이 오른다. 노동자벌이는된다고 한다. 金노인에게는 50kg이 넘는 무거운 짐을등에 지고 이 장 저 장으로 걸어서 다니던 시절이 어제 같다. 河東장이파하면 30리를 걸어서 자고 첫닭울때 일어나 60리를 걸어서 아침밥 먹고 10리를 더 걸어서 1백리길의 求禮장에 닿았다. 지금은 장車가 짐을 실어다주고 사람은 버스를 탄다. 車 때문에 몸은 편해졌지만 그 대신 트럭에다 각종 상품을 대량으로 벌여놓고 파는「차떼기」가 근래에 성행하여 金노인같은 小商人들을 울린다.

떠돌이 상인들의 수준도 달라졌다. 옛날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드물어서 국민학교라도 나와 편지를 한장 대신 써주면 크게 술대접을 받고했는데 지금은 무학자는 없고 고졸자도 많다. 상인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商道義다. 장터마다 옛날에는 지금의 시장번영회 회장격인 사람이 있어서「접장」이라 불렀다. 반드시 회장이아니더라도 접장은 老商人에게는 접장으로 禮遇했다. 金노인도 그런 접장을 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젊은 상인들이 金노인을「大學生」이라 부른다. 학력은 없지만 그 인격과 경험을 존중하여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그를 이렇게 불러 대접한다.

이「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金聖佑 <編輯委員>

『나처럼 日政때부터 오랫동안 이 장사를 해온 사람은 부자가 없다. 不正直한 짓을 안하니까 큰 돈을 못번다. 남을 속일줄을 모른다. 1천원 주고 받아온 것은 1천2백원 이상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것이 옛날 상인들의 불문율이었고 지금도 나는 이것을 지킨다. 우리같은 옛날 상인들에게는 폭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상도의가 몸에 배어 있다. 부도를 내고 사기를 하고 하는 상인은 우리 年輩는 없다. 하찮은 장돌뱅이지만 아는 사람들은 청백하다고 다 존경해주었다. 장터마다 늘 먹어주는 단골이 있어서 물건이 안팔릴 걱정이 없었다. 큰 돈은 못벌어도 우리는 떳떳했다. 우리같은 사람은 쉽수가 없다. 興도 없지만 敗도 없다. 남의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신용을 잘지켜야 한다. 신용이 자본인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안지킨다. 그저 속일 생각만 한다. 터무니없는 값으로 손님을 울린다. 상은 오늘 하루만 서는것이 아니다. 내일에는또 서는 장이 있다』장터에 時代의 縮圖가 있다. 求禮장의 老장돌이에게서 배울 것이었다.【求禮에서】

国会錄音

"4百50億弗로 外債축소전망"

국회 豫決委 질의·답변

국회재무위는 實名制파동으로 空轉끝에 10일 정상화됐으나 회의벽두 空轉책임을 놓고 各黨이 한바탕 舌戰을 벌였다.

질문 "「혼란經濟」각료無能탓 아닌가 外米 損益모르는건 國民 우롱"

▲白璨基의원(議政)=질의=國債를 발행할경우 실제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율은 국민총생산 증가율보다 높은것이 아닌가.

내년 물가 5%선 억제가 다른 공공요금이나 賃金인상과 비교할 때 가능한것인지、아니면 경기의 침체를 豫見하는 것인지.

實名制의 연기와 관련해서 稅收결함 보전책과 歲出삭감계획을 밝혀라.

실질賃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직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수와 노동위원회에 提訴된 부당노동행위건수、구제명령에 의해 復職된 근로자수를 밝혀주고 전체 기업에서 몇%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보며 위반건수는 얼마인지 밝혀달라.

▲趙正濟의원(民正)=高校평준화 정책을 지양, 경쟁원리를 적용하는 정책적인 변화를 추구할용의는없는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국립대학부속병원이 赤字운영을하고있는데 경영합리화를 통한 赤字해소방안은 없는가.

의료행위의 순수성과 인간생명、신체의 차별을 하고있는 特診制를 폐지할용의는.

塵肺症환자에 대한 보상등급과 보상액을조정해 실질보상에 가까워질생각은없는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할 용의는.

▲李成一의원(국민)=6·28및7·3조치등 근래의 경제운영이 혼란과 혼미를거듭하고 있는것은 경제각료의 능력不在와 한계를 드러낸것이 아닌가.

정부가 국민과 더불어 고통을 분담하고 재정긴축을통해 국민경제의 희생의지가확고하다면 83년도예산규모는 82년당초 예산규모9조5천억원에서 8천억원의 稅收결함을 공제한 8조7천억원에 정부가 전망한 물가상승률5%를 반영시켜 9조2천억원으로 수정해야하지않는가.

도입外米에 대한 별도計定를 하고있지 않아 그판매代金이나 損益상황을 정확히 알수없다는것은 農政의 포기이며 국민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申鎭洙의원(民韓)=지금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衝擊요법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정부는 일대행정개혁을단행,「작은정부」로 대처해야한다고 보는데 행정기구 統廢合으로 재정을 축소하고 민간과의경합분야를 과감히 이양할 용의는.

현행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행정및재정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분권화를 촉진할용의는 없는가. 총리실、경제기획원、정무장관、平統자문회의를 폐지또는 축소해야한다고 보는데 정부의견해는.

지역간 문화의 불균형을시정할 정부의 정책을 밝혀라.

내면의 자유는 외면의 자유를 통해 보장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언론의 국가이익과정부의 이익을 구분할 근거를 갖고있나.

▲李憲琦의원(民正)=정부는 保社部를 개편해 의료보험、사회복지제도등을 총괄할수 있도록 사회福祉部로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는가.

사회복지예산이 GNP의 2%에 불과한데 向後의 복지예산증액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증액의지를 밝혀라.

절대빈곤층의 자립대책은 무엇이며 全人口의 1%인 38만명이 정신질환을 앓고있는데 이에 대한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복잡다기한 현행 환경보호담당관계기관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도록 환경청을 部나 處로승격시킬 의향은 없는가.

근로자에 국가 성장의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해줄 구상은 없는가.

▲金秉烈의원(民韓)=정부에 예산편성기능의 독립선、공평성、중립성을 보상키위해 예산편성부서를 총리직속이나 대통령직속으로 할 의향은 없는가. 재산세의 課稅기준액인상으로 각종 지방세가 인상조치되고 있는데이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가.

문교부는 현교육재정형편으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다고 보는가.

국제화시대에 때맞춰 국제회의유치나 86아시안게임、88올림픽을 앞두고 문화국민으로서 5천년의역사와 우리의 빛나는 전통을 과시할 대비책이 마련돼있는지. 농민단체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金燦于의원(民韓)=연차계획의 경우 기획조정실의 기본운영계획과 경제기획원의 총자원예산등 2원화로 예산이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예산을 따르는 본말이 뒤바뀌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의 기본운영계획을 폐지하고 투자계획업무를 기획원의 총자원예산에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우리나라예산은 單年주의 방식인데 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해 계속비나 중기재정계획을 이용한는데 그결점을 보완할 정부의 대책는 무엇인가.

▲秦槟弼의원(국민)=사립학교에 무거운 양도세와방위세를 부과하는등 사립학교를 푸대접하는 잘못된 稅法을 고쳐라. 국·공립대학의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면세조치하면서 사립대학의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것은 不公平한 일이 아닌가.

公營방송의 과다한 정책홍보를 지양하고 분야별로 균형있는 방송을 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전통문화예술창달을 강조하는 정부가 國樂堂건립비 7억5천만원을 삭감한것은 전통예술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닌가. 문화재보호는 국가예산을 감안해 시설보호보다 역사적인 현장의 보존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진흥원의 업무와 중복이되는 문공부업무를 진흥원으로 통합、一元化시킬 용의는 없는가.

▲南載熙의원(民正)=최근 경제문제로 국민에 대한 책임회피의 인상은 없는가.

성급한 민간주도경제는 국민경제에서 富의집중을 주도했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주도는재벌주도가 아니며 정부의 역할 포기도 아니라고 보는데 金埈成부총리팀의 경제기본방향과 철학은 무엇인가.

은행민영화는 졸속으로서 사전법적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본다.

예산경직도가 70%를 초과하는데 대한 타개책은 무엇이며 GNP 6%의 국방비를 감축한는데 따른 정치적결단이 필요치않는가.

中長期 外債의 원리금부담이 높아 적자재정과 더불어 국제 신임도에 지장을 줄 우려는 없는가.

콘트롤데이타社의 철수가 도시산업선교회때문인가 격영난 때문이라고 보는가.

▲金埈成부총리답변=보리값 豫示制는 世論가에 대한 영향등을 고려,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믿는다.

外債는 당초 86년도에 6백45억달러로 전망했으나 정부의 外債증가 억제방침에따라 4백50억~5백억달러로 축소될 전망이다.

金利인하에따라 저축이 주는등 逆金利현상도 있었으나 차차 그 부작용도 줄어 들어 내년이되면 해결이 될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金利引下에 따른 은행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의 다양화를 여러 각도로 강구중이다.

▲朴鍾汶농수산장관=林間放牧은 81년에 처음 시도한 결과 성공적이어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 실시하고있으며 총 20만정보의草地특지역특성에알맞게조성하겠다.

▲金東輝상공장관=裡里귀금속단지의 入住업체는 55개인데 작년의 가동률은 45%로 저조했고 금년8월 현재 수출물량은 작년수준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다.

工團운영의 수출의존을 줄이고 20%범위내에서 內需用原石수입을 허용하는등 지원책을 마련중이나 諸稅 공과금이 높아 內需가 부진한 실정이다.

▲徐相喆동자장관=광업진흥公社는 민영광산에대한 개발자금및 기술지원을하고 있으며 試錐·掘進등 자원탐사활동을 정부를 대행해서하고 있다. 83년엔 鑛振公에 대해 보조금 1백16억원 출자금1백30억원등 총2백46억원을 지원키위해 새해예산에 계상하고 있다.

▲金宗鎬건설장관=현재일반건설업체수는 5백2개社이며 건설업체의 免許억제이유는 업체간의 과당경쟁、면허貸與、不法下都給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海外토픽

◇英皇子妃의 대담한 노출 다이애너英國황태자비가 한쪽어깨를 노출시킨 대담하고 화려한 이브닝드레스차림으로 9일밤 런던의 길드홀에서 열린 한 자선패션쇼에참석하고있다. 【런던9일AP=聯合】

미스월드대회 不參

★아르헨 포클랜드敗戰 앙갚음

아르헨티나는 얼마전 영국과 겪었던 포클랜드전쟁때문에 다음주 런던에서 열리는 82미스월드대회를 보이코트할것이라고 이대회조직자들이 8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직책임을 맡고있는 쥴리아 몰리 여사는 『아르헨티나는 영국과의 전쟁이 끝난지 얼마안되는 시기에 아르헨티나 대표를 런던대회에 참가시키는것을 시기상조로 생각하고있으나 내년에는 참가시킬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몰리 여사는 자신이 3주전 아르헨티나측 관계자들과 만나 아르헨티나의 이번대회 불참을 확정했다고 부언. 【런던=AP】

英재무상 바지紛失

★지갑만 行方불명다시찾아

일주일전 열차여행중 침대칸에서 돈지갑이든 조끼와 바지등을 분실한 영국의 제프리·하우재무장상(재무상)이 최근 바지를 되찾았으나 속에넣어둔 1백파운드(약1백60달러) 가든 돈지갑은 보이지 않더라고.

한 영국 철도회사대변인은 하우장관이 조끼와 운전면허 일기등이 바지와함께 중부영국의 아더스톤과 폴즈워드철도구간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경찰은 직업 도둑이 그의 바지를 훔친뒤 돈지갑만을챙기고 버린것으로 추정하고있다. 【런던=AP】

미이라 死因못밝혀

★컴퓨터斷層사진도 無爲

미국 인디애나주의 인디아내폴리스 어린이박물관은 최신X레이기재를 총동원하여 2천5백년전에 사망한 것으로추정되는 한이집트여인의 미이라를 여러모로 조사했으나 사인이 무엇인지 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어린이박물관당국은 웨누호텝으로 불리는 이미이라의사인을 밝혀내기위해 소장자인 시카고의동양연구소에서 미이라를 빌어와 인디아내폴리스의 감리병원에서 컴퓨터단층사진술을 동원,사인규명의단서를 찾지 못했다는것. 【인디아내폴리스=AP】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맛사지

(near airport)
MISSISSAUGA

「거물福德房」30여명 搜査

서울市警 江南지구 過熱投機·福부인介入등

◇쥐죽은 복덕방 서울開浦洞등 신축아파트지구에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복덕방들이 일제히 문을닫았다. 몇몇복덕방은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때까지 휴업키로했다는 안내문을 붙이기도했다.

서울江南지역의 신축아파트 과열투기붐을 조장해온악덕부동산소개업자와 복부인에대한 경찰의 일제수사가시작됐다.

서울시경은 10일 부동산투기업자특별수사전담반을 편성, 開浦지구아파트분양질서를 어지럽혀온 서울江南區大峙洞624 韓개발대표 徐춘길씨(42·서울城東區中谷洞256의16)등 6개 거물급부동산업자와 종업원등 30여명을 불러 지난6월 부동산투기가 재연된이래의 거래실적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조세법처벌법위반여부를 집중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거액의 자금을동원, 과열투기를 주도해온 돈줄에 대해서도 추적을하는 한편 복덕방업자와 전주가부동산관계 정보를빼내 흘려주는 관계인사나 아파트건설업자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실입주자에게 사기수법으로 전매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펴고있다.

경찰은 부동산투기붐을 지배해온 이들 6개 부동산업소이외에 江南지역에 집중돼있는 5백여개의 부동산업자중 동경부동산(狎鷗亭洞) 대우부동산(瑞草洞)등 25개에 대해서도수사를확대,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혐의가 밝혀지면 모두 구속키로했다.

시경당국자는 이번 수사의 배경을 『최근 江南지역에서 상습투기를 일삼아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물가앙등등 경제안정기반을 해치는 행위를 해온 투기꾼을 일제소탕함으로써 주택·아파트거래의질서를정립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시경은 주택공사로부터 고발받은 주공 開浦지구 1차분 4천2백62가구중 6개월이내 전매금지 조항을 위반한 1천5백33명에대한 명단을 거주지별로 분류, 해당경찰서에서 조사한뒤 위반가구까지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경에검거된 6개복덕방업자는 10여명씩의 직원을두고 0순위통장 수십개씩을 거둬들여 통장불리기나 분양아파트전매를 통해 가수요자들을 충동시켜 매입주아파트 한채에 최고4천5백만원까지의 프리미엄이 붙게하는가 하면 거래장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전매자들간의 매매계약서를 실제거래액보다 낮게작성하는등 탈세도조장하는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혀온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적발된 기업규모의 6개부동산업자들은 ▲한개발대표 徐춘길 ▲江南區大峙洞626 청실상가102호 宇城개발대표 金宇洙(51) ▲청실상가103호 88부동산대표 金鍾河(27) ▲江南區狎鷗亭洞 한양쇼핑센터내 삼익부동산 대표 김영래(34) ▲江南區瑞草洞 삼호가든쇼핑센터내 삼호부동산대표 金원달(43) ▲江南區盤浦洞E의25 대한부동산 대표 이창일(39)등이다.

"投機지역告示 내주결정" 金建設 國會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6개월이내 전매행위등을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사람도 징역2년이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조세법 처벌법에는 복덕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기재를 할때는 1년이하의 징역, 세금액 2배이상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있다.

내주 관계장관회의

金宗鎬건설장관은 10일하오 국회建設委에서 開浦·果川지구의 住公아파트등의 過熱投機를 막기위해 늦어도 내주중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투기지역고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不法전매자 1천여명 調査착수

서울江南경찰서는 10일 주택공사 서울지사의 고발에따라 江南區開浦아파트 1차분 불법전매자 1천5백33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불법전매자는 전체 4천2백60가구중 36%에 이르고있는데 거주지별로는 江東區가 2백66명으로 제일많고 江南區1백88명, 경기도가 3명으로 제일적다.

아파트價 자율화등 논의

투기實務委 상습자搜査 현황보고받아

부동산투기대책 실무위원회는 10일 경제기획원에서 제2차회의를 열어 투기조장 복덕방과 상습투기자들에 대한 수사진행상황과 민간아파트전매자들에대한 세무조사 현황을 보고받고 아파트분양방법및 가격의 자율화등을 포함한 각종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

鄭寅用경제기획원차관(위원장) 주재로 기획원에서열린 이날 회의는 ①建設部가 아파트분양가격자율화문제를 ②住公이 입주절차및 사후관리문제와 전매기간연장(현재 6개월)문제를 각각 검토해서 오는12일 열리는 제3차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또 법규위반 住公아파트를 환수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문제등도 아울러 검토해오도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원이 투기자의분양아파트의각 가구를 직접방문, 원분양자와 실입주자를가려내기로했다고 이날 실무대책위에 보고했다.

복덕방들 撤市

한편 江南지역의 아파트과열투기에대한 경찰의 집중수사가 시작되자 서울江南區開浦洞일대의 모든 부동산업자와 大峙洞銀馬아파트와 테헤란부동산등 20여개의 복덕방들은 10일 일제히 셔터를 내리고 『정부시책에 호응, 과열투기가 진정될때까지 자체적으로 당분간 휴업합니다』라는안내문을 내붙이고 완전철시했다.

이날 주공開浦1차아파트 종합상가안에는 불법전매자 단속 소식을듣고나온 원매자와 입주자등60여명이 삼삼오오모여 얘기를주고받고 있었다.

지난해 추첨에서 13평짜리 아파트를 4백50만원에 분양받아 4백만원에 전세주었다는 姜正煥씨(26·서울東大門區典農3洞20의24)는 『3년동안 열심히일해 겨우내집을 마련했으나 입주하기에벅차 전세를주었는데 불법전매에 해당될까봐 밤잠을설치고있다』고했고 17평짜리 아파트를 한달전에 프리미엄7백만원을 주고샀다는 權正姬씨(35·여·龍山區 漢江路3街40)는 『단칸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지내다 방이비좁아 겨우 아파트를마련했는데 벌금이 1천만원이라니큰 걱정이다. 서민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격』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했다.

자동차整備所수사

釜山, 重裝備불법수리 20명立件

【釜山】부산시 경찰국은 10일 시내 일부차량 정비공장들이 중기 정비허가도 없이 불도저·크레인등 각종 중장비를 수리하거나 폐차된 중기부품을 수집해 중장비를 조립한후 건설업체에 불법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시내30개의 1·2급 자동차 정비업소에대한 일제수사에 나섰다.

시경은 1차로 각종중장비를 허가도없이 수리정비해온 현대자동차 서비스주식회사(東萊區 巨堤洞1470) 정비과장 박찬섭씨(46)와 조양공업사(東萊區蓮山洞585) 공장장 이희영씨(35) 동성상회(釜山鎭區 釜田1洞) 대표 성연동씨(37)등 10개 정비공장 대표및 정비책임자 10명을 중기관리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시경은 또 이들이 폐차된 각종중기차체에서 엔진등각종부품을 뜯어내 크레인·불도저등을 불법조립, 시중가격보다 싼값으로 일부 건설업체에 팔아온사실도 밝혀내고 이에대한 집중수사를 펴고있다. 【聯】

慶州市 건축계장拘束

준공검사 미끼 3차례 4백만원 받아

【大邱】大邱지검 權淳旭검사는 10일 慶州市 건축계장 金泰仁씨(3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지난 80년2월 慶州市道東洞122의2 세명빌라 건축주 이정림씨(40)로 부터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80년2월24일부터 81년4월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聯】

過速미니버스 굴러 1명死亡 5명重傷

9일하오11시10분께 경남居昌郡居昌邑 대성고교앞길에서 경남7나8563호 미니버스(운전사 최만민·24·大邱市南區大明2洞)가 과속으로 달리다 높이2m 언덕아래로 굴러 승객 金종찬씨(26·居昌邑東洞)가 숨지고 이현숙양(24·居昌邑陽坪里)등 5명이 중상을 입었다. 【聯】

대규모豫備軍 동원 「82雙龍훈련」시작

대규모예비군 동원훈련이 10일 충북과 경기일원에서 시작,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번훈련은 유사시 육군이 초전 3일만에 지상전투에서 적을 격퇴해 완벽한승리를거두도록 후방에서 인원및 물자를 신속히 동원, 전방작전을 지원하고 예상되는 적의 비정규전에 대비한 후방지역 자체방호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고있다.

서울大生 2명구속 反政府 유인물뿌려

서울冠岳경찰서는 10일 서울대생 朱榮鎭군(21·무역과4년) 洪昇熹군(22·사회복지과3년)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3일 하오5시께 서울鍾路區 鍾路3街에서 「국민들에게 보내는글」이라는 제목의 반정부유인물 4백여매를 만들어 뿌리고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仁荷大生 2명拘束 교내示威 선동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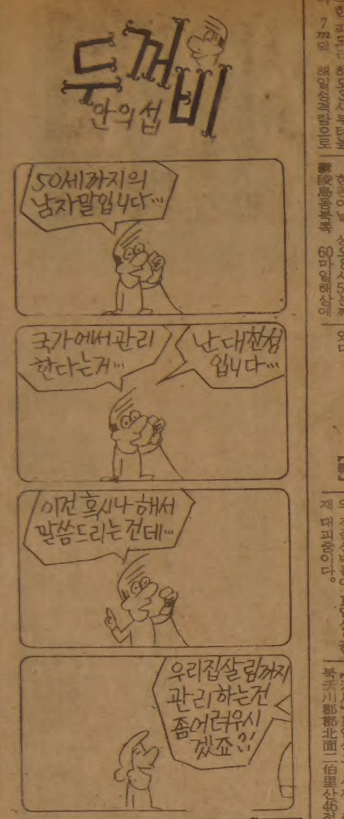
【仁川】仁川경찰서는 10일 仁荷大 조선공학과 4년 최진우군(21)과 역사교육과 4년 이우철군(22)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8일 하오1시께 동교본관앞에서 불온유인물 2백장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聯】

어머니 手術費빼긴 家政婦에 각계온정

속보=홀어머니의 수술비와 적금을 보태기위해 가정부일을하면서 모은돈 1백44만원을 강도당한 田明順양(22)의 기사(한국일보 9일자 11면 머릿기사)가 나자 서울東大門區里門洞29의33 金隆정형외과 원장金隆씨(39)는 9일 田양의어머니李順任씨(45)의발가락절제수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또 民正黨중앙위원회 여성분과운영위원일동이 20만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서울시지부 17개지회장일동이 10만원의 성금을 9일 본사에 보내왔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東海곳곳 防波堤붕괴

激浪몰아쳐 漁船좌초등 2억피해

【東草】10일 정오께부터 東草·高城·襄陽등 동해북부연안에 해일성의 격랑이 몰아쳐 곳곳에서 방파제가 무너지고 항포구의어선들이 밀려나 좌초하는등 많은피해를 냈다.

이날낮 12시께부터 일기시작한 파도는 하오3시부터 높이 7m의 해일성격랑으로 돌변, 東草항의 북방파제의 끝부분 9m와 高城郡土城面 我也津항 남부방파제및 물양장65m, 土城面鳳浦里 포구방파제8m, 高城郡縣內面大津항 방파제및 물양장 30m등이 붕괴돼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한편이날 상오8시50분께 鬱陵島동북쪽 60마일해상에서 오징어잡이하던 東草항소속 70톤짜리(선장 최현대·41)가 높은파도에 흔들리는 바람에 이배에타고있던 어부 김수업씨(31·강원 東草市 靑湖洞7통3반)가 실종되고 김성호씨(26·東草市南鶴洞1통4반)는 중상을입었다. 【聯】

목포항선박발묶여 승객 5천여명도

【木浦】木浦항에는 40여척의 여객선과 화물선등 2백여척의 선박이 발이 묶였다. 또 黑山항에는 고기잡이나갔던 어선2백척등 3백여척의 각종선박들이 10일상오현재 대피중이다.

폭풍주의보가 내려지자 인근섬을 연결하는 여객선이출항하지 못해 인근도서지방으로 나갈 5천여명의 승객들의 발이 묶여 木浦시내에는 여관에 있다. 【聯】

精神질환자17명 집단脫出

어제새벽 沃川서 2명은잡혀

【沃川】10일상오5시께 충북沃川郡北面二伯里산46 정신질환자수용소인 復活院(원장 金善洙·57)에서 원생17명이 집단탈출, 이중 2명은 상오8시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탈출한 원생들은 8호실에 수용됐던 金茂昆씨(25·大田市東區佳陽洞39의10)등으로 이들은 8호실의 가로50cm, 세로24cm의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 탈출했다.

이들이 탈출한 사실은 이날상오6시께 3호실환자 柳靑實씨(39·서울東大門區典農2洞126의26)가 아침예배를 보기위해 각방을 돌며 원생들의 잠을 깨우다 발견, 수용소총무 嚴상설씨(50)에게 알려 嚴씨가 沃川경찰서에 신고해 알려졌다. 【聯】

"大入豫試 지망지역 誤記 입학취소는 당연"

大法院,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부는 10일 예비고사원서의 지방지역란을 착오로 잘못써서 대학입학이 취소된 李東熙군(20·경북英陽郡英陽邑東部洞51)이 전북裡里 圓光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李군을 다시 입학시키라고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光州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李군의 아버지가 한의사인 李군은 지난 80년12월에 실시된 81년도 대입예비고사때 자신이 희망하던 圓光大 한의학과에 입학하려면 지원서에 시·도별 지망지역란에 「전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圓光大가 전남에 있는줄로 잘못알고 「전남」으로 기재했다가 합격한뒤 이사실이 알려져 입학이 취소됐었다.

문중땅 속여팔아 6천여만원 챙겨

【釜山】부산東萊경찰서는10일 문중땅을 자기가 상속받은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꾸며 금품을 사취한 朴현환씨(46·부산北區毛羅洞887)를 사기및 사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朴씨는 지난2월26일 이웃 최판권씨(60·東萊區溫泉2洞398)가 공장부지를 구한다는것을 알고 부산北區毛羅洞715에 있는 문중땅 2백32평(싯가7천만원)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이고 평당 27만원씩 모두 6천2백67만원에 팔아넘긴혐의다. 【聯】

새우잡이漁船 침몰 1명失踪, 2명救助

【木浦】19일밤10시30분께전남新安郡都草面牛耳島앞2백m해상에서 10톤짜리 새우잡이선 동영호가 심한풍랑으로 침몰, 선원겸선장 梁龍吉씨(52·新安郡都草面牛耳島)가 실종되고 선원 金生愛씨(49·〃)등 2명은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의해 구조됐다. 【聯】

朴永復에 30년求刑

사기사건抗訴審

형집행정지기간중 또다시 사기극을 벌여 재수감, 구속기소된 금룡통상대표 朴永復피고인(46)에게 항소심에서 1심구형대로 징역30년이 구형됐다.

朴피고인은 형집행정지 기간중 유령회사를 차려놓고주민등록증·인감증명등을 위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억원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받아내 이를이용,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등의 방법으로 3억7천여만원을 사기한 혐의로 지난2월 재수감되면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았었다.

선고공판은 오는30일 상오10시.

「사랑의 發表會」 가정法律 상담소 朴英愛씨

2週에 한번꼴 무료結婚式서 祝歌

2주일에 한번꼴로 노래발표회를 갖는다고하면 많은사람이 놀랄것이다. 『노래실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력적이기에 그렇게 자주 발표회를갖느냐』고 의심하는게 당연할지모른다.

소프라노 朴英愛씨(37·사진·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주에 한번은 발표회를갖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들과함께 하소서」란 노래를 부른다. 벌써 4년째다.

발표회장은 서울永登浦區 汝矣島洞1의8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6층강당. 청중이라야 법률상담소가 매주 토요일에 마련하는 무료결혼식으로 새출발을 다짐하는 가난한 신랑·신부등 10여명내외지만 朴씨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파고들어 결혼식장을 경건한 분위기로 이끈다.

朴씨의 축가를 듣고 내일을 설계한 신랑신부는 80쌍이 넘는다.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 부부에서 부모의 허락을 얻지못해 자녀까지 두고도 어렵게 살아가는 부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애틋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朴씨의 노래는 음역이 넓어 결혼식장을 장중하고 경건하게 만든다는평. 그녀가 어렵다는 바하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소서」란 곡을 부르는것은 이곡이 신랑·신부의 행복을 가장 절실하게 기원해주고 있기때문이다.

朴씨가 무료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기 시작한것은 79년부터다. 梨大音大 3학년때인 지난 67년부터 74년까지 홀트아동복지회가 운영하던 10대혼혈아 고아원에서 음악지도를 한것이 인연이 됐다. 그때 사회선교사가 무료결혼식이 너무 초라하다면서 축가를 불러줄것을 부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이후부터 무료결혼식의 축가 전담이 됐다. 부르는 노래는 단한곡이지만 처음 발표회를 갖는 사람처럼 한치의 게을름도 없다.

『가난한 신랑·신부의 행복을 기원한다는 마음에서 정성을 다해요. 그렇다고 봉사라고 생각해본 일은 없고, 다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사람을 굳게 맺어주는데서 보람을 찾아요』

행복하게 사는 부부에게서 감사의 전화가 걸려오면 그때마다 『이해타산만 따지는 요즘세상에서 이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감사할줄도 알고 자기의 분수도 안다』는 생각에 오히려 부끄러워진다고 고개를 숙인다. 【崔在龍기자】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Chameleon Sunglass Boutique

〈각종 고급 썬그라스 대매출〉

각종 유명 메이커제품을 구비하고
한인교포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Paola Belle •Zeiss •Porsche •Ted Lapidus •Yves •St. Laurent •Christopher Magnus •Play boy

검안해 줍니다. Prescription Also Available 15% Discount Korean Only

•Christian Dior •Ferrari •Nina Ricci •Roger Gallet •Emmanuelle Khahn •Pierre Cardin

광고쿠폰을 가져오시면 15% 할인합니다. Bring This Ad for 15% Discount Korean Only

St. Charles Promenade(Tel: 920-4062)
(One Block South of Bloor St.)
730 Yonge St.(블루아×영 남쪽)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6월,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印度아시안게임 카운트다운 ⑩

복싱

지난날의 메달박스, 이번엔展望흐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에는 아마복싱은 어깨에 힘을 넣는다. 역대 아시안게임서 한국이 상위입상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마복싱이 얼마나 많은 금메달을 따내느냐에 따라 좌우됐다.

54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안게임에 첫출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던 아마복싱은 78년 방콕의 8회대회까지 금27, 은10, 동10개등 획득, 한국의 명성을 상부한 메달박스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사정은 좀다르다. 과거 어느때보다 불안하다.

지난 7월 서울서 열린 제10회 아시아복싱 선수권대회서 한국은 금7, 은1, 동4개로 금3, 은3, 동3개씩을 따낸 泰國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 결과만 놓고 볼때 이번 아시안게임서도 한국 복싱의 전망은 밝다하겠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북한·中共·몽고등 공산권 강호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

한국의 금메달 목표는 2~3개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라이트웰터급의 金東吉(19)과 라이트플라이급의 許永模(17), 페더급 朴基哲(20)도 가능성은 있다.

金東吉은 81년 킹스컵 국제복싱대회 금메달을 획득한이래 지난5월 제3회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펀치력과 기교를 함께 갖고있다.

許永模는 81년 제2회월드컵국제복싱대회 은메달리스트이며 제3회 세계선수권서 동메달을 따내는등 어린나이에 비해 국제경험이 풍부하다. 기교파인 許는 서울 아시아 선수권대회 결승서 강펀치를 자랑하는 日本의 세가와를 누르고 우승했었다. 이번 아시안게임서도 일단 세가와와 재대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량급에서 강한 북한과 몽고 선수들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만큼 마음을 놓을수 없다.

朴基哲의 입장도 許永模와 비슷하다. 79년 제1회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서 금메달을 따낸것을비롯 81년 제2회 월드컵 복싱대회동메달등권위있는국제대회에서좋은성적을냈었다.

◇역대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수

회	년	개최지	금	은	동
2회	54년	필리핀	1	2	1
3회	58년	일본	2	0	2
4회	62년	인도네시아	3	1	1
5회	66년	태국	5	3	1
6회	70년	〃	6	1	2
7회	74년	이란	5	2	0
8회	78년	태국	5	1	3

◇복싱대표선수들이 메달을 향해 막바지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權周勳기자】

金東吉·許永模에 金기대

태국·比·北韓등이 강적

이번 아시안게임서 한국은 경량급에서 태국·필리핀·북한·몽고등을 조심해야하며 중량급에서는 이란·이라크와 개최국 인도를 조심해야만 성과를올릴수있다.

복싱연맹은 蔡用錫·朴炯春·朴太植등 기존 코칭스태프에의한 훈련외에도 외국인 코치를 초빙하는등 열의를 보였다. 美國 학생선수전자 출신이며 30년 코치경력의 크리스토·히토플로스씨(58)와 美國 육준대표선수를 지냈으며 아마시절의 켄·노턴을 겪은바있는 코치경력10년의 로버트·홀시씨(43)등 2명을 특별 초빙, 맹훈련을 쌓았다. 【金仁奎기자】

◇복싱대표선수
▲라이트플라이=許永模 ▲플라이=權彩晋 ▲밴텀=文成吉 ▲페더=朴基哲 ▲라이트=權亨珪 ▲라이트웰터=金東吉 ▲웰터=鄭鎔範 ▲라이트미들=李海正 ▲미들=李兩儀 ▲라이트헤비=洪起鎬 ▲헤비=蘇培元 ▲슈퍼헤비=金鉉宋

파이팅慶南 金泉에 先着

京畿, 서울제쳐 종합1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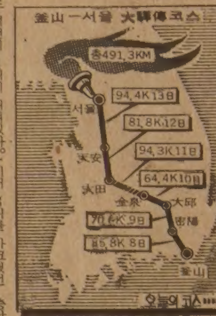
朴京德·고교생 崔昌鎬 크게활약

28회 京釜大驛傳경주 3일째

【金泉=대역전취재반】 최하위에 처져있던 경남이 파이팅을보여 金泉에 선두로 골인, 파란을 일으켰다. 제28회 부산—서울간 대역전 경주대회 (한국일보社·일간스포츠·대한육상경기연맹 공동주최) 3일째 레이스가 大邱—金泉코스(64·4㎞)에서 펼쳐진 10일, 경남은 충남 경기의 추격을 뿌리치고 3시간20분21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釜山—金泉간 (220·8㎞) 종합기록에서는 경기가 서울을 31초차로 따돌리고 1위에나섰다.

◇빗길을 헤치고 大邱—新洞간 제1소구에서 경남의 趙在龍②과 경기 朴京德이 질퍽질퍽한 빗길을헤치고 맹렬한 선두다툼을 벌이고있다. 【대역전취재반】

전날 가랑비가내려 쌀쌀한 날씨속에 李相熙 大邱직할시장의 출발신호로 大邱시민회관앞을 출발한 선수들은 大邱시민, 학생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경남은 이번대회서 가장긴 소구간인 제1소구 大邱—新洞 (19·2㎞) 코스서 趙在龍이 朴京德(경기) 李洪烈(충남)등 맹장들과 각축전을 벌여 선두와 10초차로 3위로 골인하는 좋은 스타트를보여 서울, 경기를 제치고 金泉에 선착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경남은 제2소구서 柳在甲이 구간신기록에 1초 모자라는 33분17초로 李洪植(경기)徐炳大(충남)를 따돌리고 倭館에 선두로 들어온후 咸洪根, 鄭渭植등 주전들의 맹활약으로 선두를 지켰다. 그러나 경남은 釜山—金泉간 종합기록서는 12시간13분31초로 여전히 4위에 처져있다.



제2구간까지 서울·경기에 이어 3위를 마크했던 충남의 李洪烈은 제1소구서 朴京德(경기)과 1시간29초로 동시에 1위로골인했다.

충남은 후속 徐炳大, 俞炳觀등의 부진으로 경기에 뒤지다가 제5소구(扶桑—月谷)서 裵銀煥이 경기의 元鍾赫을 제치는 활약에 힘입어 3시간21분15초로 2위를 차지했다.

경기는 이날 朴京德과 고교생 崔昌鎬의 분투로釜山—金泉간 종합기록서 11시간18분58초로 우승후보 서울을 31초차로 따돌리고 선두에올라섰다.

서울은 이날 소구간서 한번도 3위이내에 들지 못했는데 제1소구서 장거리에약한 鄭鍾模를 기용한 것이 실수였다. 鄭은 大邱—新洞간 1소구서 1시간3분28초로 선두에 2분59초 뒤처졌으며 蔡鴻洛, 柳文鍾도부진했다.

금년도 전국체전 마라톤우승자인 崔慶州마저 제8소구서 최하위를 기록, 서울은 이날 레이스서 최하위로 밀려났다.

<제3일 기록>
(釜山—金泉220·8㎞)

①경	기	11시간18분54초
②서	울	11시간19분25초
③충	남	11시간22분19초
④경	남	12시간13분31초

<제3區間 기록>
(大邱—金泉64·4㎞)

①경	남	3시간20분21초
②충	남	3시간21분15초
③경	기	3시간21분19초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덥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한국일보광고는
• 구인·매매·렌트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많은 공지사항을 한눈에 찾아 볼수 있읍니다.
• 광고는 낭비가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 광고국 (416)533-2361

제14기 名人戰 挑战者決定리그

第3局 第6譜 78~104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
黑(7段) 河燦錫

黑、決定打 逸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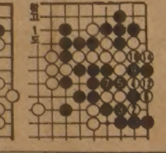
白78로는 93자리에 건너붙여 살아두어야하는 것을 무리하게 78이하82로때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되었다.

그런데 黑은 여기서 그만 결정타를 놓치고 말았다. 다름아닌 黑83, 물론 이곳도 이른바「두점머리」급소이다. 그렇지만 같은 두점머리라도「가」쪽, 즉 참고1도의 黑1이라야 이하 黑15 (도중 白8은 1자리에 이음)까지 黑을 잡을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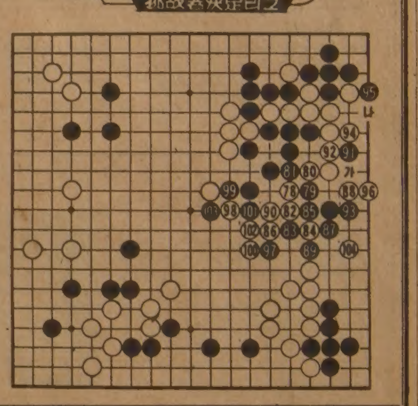
그야 白도 이렇게되어서는 망한꼴이므로 수순중 8은 참고2도의 1에 밀어 우선살고 △표2점을 포기하겠지만 이것도 모처럼 강하게 둔 ◎표2점이 헛수로 되어버리니 [illegible]리가 없다.

어쩌면 河7단은 바둑에 매력을느끼지 않았을까. 좌우간 83을 둔이상 격전은재연되어간다.

白88을 안두면 黑91치중으로 전멸한다. 이하 黑95때 白96이 침착한 호착이라고 한다. 다음「나」의패를 보기때문. 黑도 계속 싸우기가 거북했는지 97이하103으로 白104와 교환하고 더이상의분규를피했다. 【一凡】


참고 1도

참고 2도



교민을 위한
82년도 송년파티에의 초대

일 시 : 1982년12월10일(금) 오후6시
장 소 : 할리데이·인(다운타운)
89 Chestnut(977-0707)
입장료 : $25(디너포함)
*유명가수와 밴드가 출연합니다.
예매처 : 한인회, 아리랑하우스, 각식품점

토론토지구
한인회장 박인순

서울사대부고
망년파티

한해가 또 저무는군요.
해가 가기전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보고자, 아래와 같이 모임을 마련하였아오니, 동창 내외분은 물론, 자녀와 부모님들 모두 모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1982년 12월 3 일(금) 오후7~10시
장 소 : 한 인 회 관
회 비 : 정기회비 이외에는 없음.
연 락 처 : 960-5736, 844-0178 김인규
준비사항 : 가족단위 특기자랑

서울사대부고 동창회장 김 현 모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2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시간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운전 개인지도. 서쪽 끝
온타리오 안전기구와 정부 보증.
전화 : 626-5715 Mr. McKenzie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광고문의 533-236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옆)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이경복회계사 C.G.A.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도넛숍에서 일할 여자분. 주중과 주말.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스카보로 지역)
전화 : 284-9325

〈오토바디숍 헬퍼 구함〉
-자동차 일에 취미 가진 남자.
-주 40시간(년봉: 1만~1만2천불)
-학교에 보내 라이센스 받을 때까지 트레이닝 코스를 밟게 함.
전화 : 533-8507, 8508 Mr. 람

밀크스토아 메니저 구함.(오타와 지역)
약간의 보증금.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624-5817(토론토)

도너스 가게서 일할 파트타임 여학생 구함.
다운타운 소재.
전화 : 222-3877

〈급구〉 Pizza 집에서 Cash와 Order 받을
영어에 능통한 여자분 구함
전화: 267-2292(Mr. 문)

버라이어티 가게에서 캐시와 막일할 경험있는
헬퍼 구함. ◉하루 9시간. ◉주6일.
전화: 534-3338 Mrs. 김(오후3시 이전)

◉남자 헬퍼 구함: 오후3시-밤11시(주 6일)
◉여자 캐쉬어 구함: 토·일요일
전화 : 921-0624

입주하셔서 두 아기 봐주실분 구함.
(5살, 1살)
전화 : 447-1460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 동반자 구함. ★본인은 컴퓨터 전문가. 신사. 캐나다 시민권자. Scandinavia 태생. 독신자. 참되고, 교육받고, 유머가 있으며, 세련되고 진실된 한국여성을 만나고 싶읍니다. 25세-34세정도. 친구나 결혼할 용의가 있으신 분. 영어로 문의바람. BOX 833. Station K. Tor. Ont. M4P 2H2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교민단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흰치 & 베더스트)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매 매

그로서리 가게와 빌딩 매매
토론토서 20마일 북쪽. 아스킹: $155,000+스탁
몰게지 가능. 전화 : 1-939-2341 Mr. 조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 지역
주매상: $12,000 렌트: $750 아스킹: $120,000+스탁
전화 : (514)366-8393 Mr. Plante

잘 꾸며진 레스토랑 매매. Yonge & St.Clair
200좌석. 좋은 리스. 빌딩과 붙었음.
전화 : 924-1435 Jim or Louis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소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도넛숍 매매.
서쪽끝에 빠쁘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
주매상: $3,500이상 보장. 리스: 13년. 아스킹: $119,000
주인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꼭 팔아야함.
도나스 만드는 것은 주인이 추레인 시킴.
전화: 596-8170(B), 447-4585(R) Andrew Lee.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Lawrence & Allen Express)
Plaza 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759-8658(R), 781-6774(B)

우체국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아스킹: $15,000+스탁. ★우체국이 있으므로 이민자나 시민권자에 한함. ◉전화: 691-5297 Mr. Gilbert.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전화 : 653-6336, 598-4327

비데오 아케이드 매매
아스킹: $20,000 리스: 4년+3년
전화 : 691-8337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살림집 포함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많은 권리금 기대하지 않음.
-G.M.회사에서 가까운 바쁜 거리.
230 ONTARIO ST.(전화: 1-685-5863)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2 Door 짱 롤러 팝니다.
Good Condition 가격 : $350.-
전화 : 245-0711

스토어 매매. 이층에 살림집 있음.
주매상: $3,500이상. Video머신, 로타리오 머신에서
월 1,000불이상 수입. 전화 : 1-383-8232(Hamilton)

가게렌트 또는 빌딩 팝니다.
Dawes Rd. & Victoria Pk. Ave.
전화: 461-5386 저녁7시~10시.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4 Bed Rm. House전체를 세놓고자 함(Brampton지역)
2Bath Rm. Family Rm. Fire Place차고등.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전화: 593-8943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3 Bed Rm.)
12월1일부터 입주가능. Victoria Pk. & Danforth(써브웨이 건너편)
◉렌트: 월$700(관리비 포함) ◉Sale: $64,000. 전화: 694-4812

3층 건물 렌트합니다.
Bathurst & Queen
음식 장만하게 만들어 졌음.
부엌. 대형 냉동기, 냉장기, 스토브, 씽크.
3층은 살림할수 있게 되어있음.
전화 : 364-1629(오전 9시-오후 5시)

집 매 매

4 Bed Rm.(Double Garage)
몰개지 : 11¾%.
장소: Morning side & Lawrence Ave. E.
(Mall 근처)
가격: $108,900
전화: 497-7272(B)·281-0672(R) Melwood.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케네디 꽃집
○각종 Arrangement. ○Plant. 화환.
○주문배달. ○꽃도산매.
2196, 2252-4 Bloor St. W.
전화: 762-1572, 762-9854 김웅일.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 532-7094(B) 138 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하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물센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